NOV 1 9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73 1981년11월18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November 18.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실협 회장단 후보 대담═

公約이냐 空約이냐?

장 소 : 본사 회의실
시 간 : 1981년11월16일 하오3시반~5시
참석자 : 임철원(회장후보), 하소영·최복기(부회장후보)
차선겸(〃), 김이열·조기연(〃)
사 회 : 유승민 기자, 조미래 기자.

◇왼쪽부터 하소영·임철원·최복기씨 ◇이에 맞서는 차선겸·조기연·김이열씨

오는 26일로 다가온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회장단선거를 앞두고 본사는 23일 하오3시반 임철원, 차선겸 양 후보측을 본사회의실로 초청, 토론을 가졌다. 그동안 여론조사등을 통해 실협선거를 분석해온 본사는 직접적으로 양 후보측의 계획, 실현성등을 타진, 그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인지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집중시켰다. 1시간30분에 걸친 두팀 후보들과의 질의 응답은 실협회원들이 선거에서 회장후보를 선출하는데 판단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생각, 토론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내용중 존칭 생략).

문 : 두 후보는 이제까지 내건 공약을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정도 실천할 계획인지?

임철원 회장후보 : 제가 새 집행부의 회장이 될 경우 새 예산은 확실히 구예산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반영할는지는현단계로서는 밝히기 어렵다.

차선겸 회장후보 : 실협수입의 대종은 회비및 리베이트이므로 대외적으로 적극성을 띠어 현재의 연간 예산액인 15만달러는훨씬 능가하는 수입원을 확보하고 또한 예산의 규모도 확대할 생각이다.

최복기 부회장후보 :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회비수입은 전체협회 수입의 20% 밖에 안됐다. 실제 주류를 이루는 수입원은특별사업 즉 빵, 밀크아이스크림등의 리베이트 중에서 나오는 7만달러 정도였다.

문 : 차후보는회원의 불평을 제도적으로 처리하고 조직적인 기획조사실 운영등을 공약했는데, 첫단계로 무엇부터 시작하려는지?

차 : 무슨 조직이든지 잘 운영되려면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인력, 시간등으로 협회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나는 분업의원칙을 잘 활용할 계획이고 우선은조직을확대하겠다. 첫째, 기획 조사실을 마련하고, 둘째, 구역별로·구역장제도를 만들어 집행부와 회원간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겠다.

최 : 우리는 우선 회원자신의 이익 극대화와, 둘째로 한인사회의 이미지 승화에 공헌하겠다. 이미지 개선의 문제는 비단 실협의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기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차 : 구멍가게를 하는 영세상인이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그렇게큰 비중을 둘 만큼 우리의 여건이 허락할는지·· 우리는 가능한한 회원의 실리추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

임 : 지난번 예산책정시 협회 집행부는 한사람분인건비를 더 책정했다가 이사회에서 거절당했다. 물론 새 집행부가 추가갱정예산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우리는 현재의 사무직을 충분히 활용, 주로 외부일을 전담케 하고, 사무직원 한명이 내부일을 담당하며, 필요할때 파타임 직원을고용할 생각이다.

차 : 나는 예산의 차원을 떠나서 토론토인근에 있는 한인비지니스맨 천여명(회원 600명, 비회원 4백명) 중 실협, 나아가서 한인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하려는 인재들을 찾아 그분들로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직의 방향을 두고 있다.

문 : 두 후보가 가진협동조합에 대한 비젼 은?

최 : 협회 창립때 부터의 숙원사업이지만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온타리오 본부에서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놓는 정도에서 그쳤다. 차후보측에서는기존 도매상과의 공존내지통합등을 구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안일한 편법을 써서 일을 서두르기보다 회원의 참여의식을고취, 회원의 공평한 공동투자에 의한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자금조달 방법,즉 자체 조달금액외에 추가예산금액을 금융조합등에서 끌어올 수있는 가능성도 타진해 보았다. 임기중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여러 가능성을 두루 연구, 회원 자신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차 : 최후보는 우리공약을 신랄히 비판했지만 정작 협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나자신과 의논도 없이 어떻게 조합에 대한 청사진을 가질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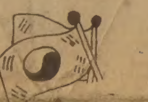
협동조합 설립이란 문제는 결코 일시적으로 이룩될 것이 아니므로 다만 우리는 신중하게 조합설립및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면에 계속

한국, 캐나다텃세에 눌려

허영모, 장인식 결승진출

= 제2회 월드컵복싱대회 =



(몬트리얼= 정관성지국장) 캐나다의 텃세에 눌린 한국의 김동길 선수는 앤더슨과의 싸움에는 이기고, 심판에게는 져 동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제2회 세계월드컵복싱대회에서 한국팀은 6명의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 2명이 결승에 올랐고, 4명이 탈락해 4개 동메달을 확보했다.

15일 라이트플라이급 준결승에서 허영모 선수는 필리핀 길·자마리를 맞아 1회전부터 재빠른 푸드웍으로 자마리를 연타했다.

2회에는 다운도 빼앗는등 압도적으로 리드해나가 판정승을 거두고 18일의 결승에 진출했다.

밴탐급의 장인석 선수도 큐바의 강호, 루이스·레이스를 맞아 이미 소련선수와의 대결서 눈을 부상한 레이스의 눈을 다시 강타, 부상이 재발해 1회 1분 만에 RSC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허, 장선수는 최소한 은메달은 확보했다.

그러나 헤비급의 김남희 선수는 미국의 칼·윌리암에게 경기시작 21초만에라이트스트레이트를 맞고 넉다운 당했다. 김선수는 부축을 받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 회복했다.'

16일의 경기에서 한국의 기대주 라이트 웰터급의 김동길은 캐나다 앤더슨과의 대결서 뜻밖의 판정패를 당했다.

이날 앤더슨 선수는 원손을 거의 쓰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김선수의 연타공격을 막고 도망다니는 경기를 벌였다.

경기가 끝난 후 심판들은 3:2로 앤더슨의 승리를 주장, 마우리스 체육관에 모인 7백여 관중들의 야유를 받았다.

앤더슨은 "내가 쉽게 이겼다. 사람들은 내 스타일을 비난하나 경기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동길선수는 "억울하다"의 한 마디를 남기고 쓸쓸히 경기장을 떠났다.

이날 페터급의 박기철선수도 큐바의 훌타에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김동길 선수의 공격을 피하기만 하는 엔더슨, 김은 시합에는 이기고 판정에 졌다.

고고학분야 남북교류 제안

이념초월한 문화유산개발시급

(서울 17일=연합) 한국의 이광표 문공부장관은16일 고고학분야의 남북한교류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문공장관은 연합통신구독자연례대회에서 "고고학분야의 교류는 남북교류의 가장 가능한 형태다"면서 남북한은 공동으로 고대 한국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공동탐사및 연구자료를 서로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장관은 30여년전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정치이념의 차이로 남북한은 어떠한 문화적접촉도 하지못했다는데 유의하고, 고대사는 남북한이 이념과 정치제도를 초월 공동으로연구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캐나다달러 강세

미화$1대 84.22¢

캐나다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여 미화1달러당84.22센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자율하락과 캐나다 달러 상업적 수요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가을들어 계속 떨어지는 미국의 금리는 샌프란시스코의 크로커내쇼날 은행이 우대금리를 16%까지 내렸다. 현재 미국의 금리수준 15.75%~16.75%에 이른다.

한편 한국의 「원」은 미화와의 환율에 변동 없는 686.20대 1을 기록하나, 캐나다 달러에는 약세, 17일 현재 캐나다 1달러당 578원32전으로 거래되고있다.

한국일보
533-2361

— 감사말씀 —

지난 11월14일(토) 하오 있은 한국일보사 사옥이전파티는 3백여 교민및 각계인사들의 참석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읍니다.

바쁘신 중에도 직접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고, 또한 화환, 금품등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사 직원일동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서 울 식 품

13일(금) 부터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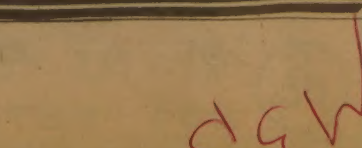
배추 $7.50(박스당) ※선물을 드리는 고로 무·배추의 실제가격은 박스당 $5.00정도에 불과 합니다.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최근일자 기입되어있음	15.00
●오징어젖 Lb.(특별가격)		.80
●김(100장)	19.99	13.90
●강냉이차(500 GR.)	1.69	1.49
●보 리 차(500GR.)	1.69	1.49

	REG.	SPEC.
●멸 치 젖 Lb.	2.99	1.99
●어리굴젖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 20% 할인		
●찹쌀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젓($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다량입하 : 삼양라면, 삼양짜장, 새 칼국수
㊟SALE가격 : 스텐레스 다라이(양품) 다량입하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한국에 관심큰 트루도의 인간상

그의 방한을 계기로 살펴본다

— 이규현 주캐나다대사 —

토론토한인라이온스클럽(회장 윤여경)은 지난 4일 월례회의때 이규현 주한 캐나다대사를 연사로 초청, 이대사로부터 트루도 수상의 방한(9월27~29일 본보 9월29일 30일, 10월2일)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주제로 한 연설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부루스·콜린스 라이온스클럽 토론토지역 부장등 캐네디안 관계자들과 특별초대교포 인사및 회원등 45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에 걸친 이대사의 연설은 트루도 수상의 인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이었다. 대사의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글의 책임은 기자에게 있음).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서 트루도 수상을 부페식 오찬 장소로 안내하고 있다.

외교관이 주재국의 수반을 본국에 모시는 일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인데 나는 오타와 재임 1년3개월 만에 이같은 영광을 가졌다.

수상의 방한이 결정된후 수상의 보좌관은 "수상은 최근 한국문화 전통에 큰 관심이 있으므로 한국가면 가능한한 한국풍습에 접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상이 방한 13일전 (본보 9월 19일자) 대사관저를 방문했을 때 그는 "한국에는 일본의「다다미」를 깔은 것같은 여관방이 없는가? 서양식 호텔은 싫다"고 말했다.

나는 "온돌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답변했다.

수상의 한국도착 10여일전 본국에 가니 외무부 의전관리는 "이렇게 주문이 많은 귀빈은 처음이다."라고 불평했다. 그는 온돌방 있는 여관 탐색전에 나서 겨우 비원앞 운당여관을 찾았으나 진입로등 시설이 부족했고, 그후 새겸정의 여관들도 답사했지만 한국식 맛은 있으나 수상이 체류하기에는 부적합했다.

그는 수소문끝에 신라호텔에 한식스위트를 발견해서 예약을 마쳤다.

나는 서울도착 직후 곧 호텔로 달려갔다. 마침 재벌 이병철씨의 맏따님(고려병원 조은혜 원장 부인)의 진두지휘로 일꾼들이새 장판을 깔고, 도배질에 한창이었고 동양화, 가구도 따님댁 것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었다. 신라호텔은 이병철씨 소유이다.

수상은 체한중 매일 한국음식을 먹고, 보료를 깐 방에서 이불을 덮고 온돌바닥에서 잤다. 일국의 문화를 직접 맛보겠다는 인간적 호기심에서였다.

수상은 전대통령과 낮에 만났으나 의기가 통해 예정에도 없이 밤에 또 만났다. 한국식 주안상을 놓고 한국 위스키로 밤늦게까지 즐겁게 환담했다.

수상은 다음날 동작동 국립묘지의 애국열사 묘역서 프랭크·스코필드 박사 묘비를 보고 감격했다.

그는 "한국에도 베쑨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베쑨은 중국서 일생을 바친 캐나다 의사로 중공의 영웅이 되어 있음.)

수상이 부산 유엔군묘지 캐나다군 묘역에 도착하자 마침「국군의 날」을 맞아 방한한 캐나다 참전용사들이 도열, 수상을 맞아 감회를 더 깊게 했다.

한국동란때 전사한 캐나다군의 나이는 18~19세가 태반임을 묘비를 보고 발견, 나는 그들의 어린 나이에 가슴이 뭉클했다.

수상은 한국문화에 관심이 커서 불국사의 승려들은 승려와 함께 점심을 먹겠다는 캐나다측 요청에 전례없는 일이라고 난색을 표시했었으나 정부측의 특별권유로 점심회식이 이루어졌다.

수행기자와 보좌관들이 마당에 앉아 고기반찬을 먹는 동안 수상은 승려와 함께 방바닥에 앉았다.

수행 국회의원 2명, 다우링 주한 캐나다대사와 내가 동석했다.

사람수대로 밥 한그릇, 국 한그릇, 냉수 1잔과 나물반찬이 나왔고 예외로 마련한 떡이 전부였다. 음식은 남기면 안되고, 먹은 식기는 물로 다 씻어 그 물을 또 마셔야 한다. 나무수저를 쓰며 수상은 많은 분량을 먹었다. 식사중 국회의원들이 자꾸 나에게 말을 걸자 수상은 "묵묵히 먹어야지, 얘기하면 안됩니다."고 주의를 주었다.

불국사에서 석굴암으로 가는 길의 일부는 포장이 안돼 헬리콥터장에서부터 20분간은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때문에 외무부 직원들은 수상의 석굴암 관광을 일정에서 빼려고 까지 했었다.

나는 대안으로 자전거 여행을 제안했다. 외무부는 기아산업에 요청, 수상이「헬」기에서 내리자 반짝반짝 빛나는 삼천리호 자전거 20대와 한복차림 아가씨들이 흰 장갑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수상은 바지끝을 양말속에 접어넣고 자전거에 올라 신나게 석굴암으로 향했다. 무척 즐거운 표정이었다.

이번 수상의 한국방문은 방문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 양국수뇌가 서로 알게 됐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몹시 중요한 일이다.

원래 나는 오타와 부임이후 한국관계 자료들을자꾸 외무성에 보냈다. 그후 눈치를 보니까 이자료가 수상에게도 전해 지는 것을 알았다. 나는 기회를 봐서 "수상을 집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제의했고, 수상은"한국친구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해 준다면…"하고 단서를 달았다.

나는 메뉴를 영어로 작성하고 어펫타이저(식욕돋우는 간단한 음식)로 구절판, 기타 튀각, 생선, 약식, 물김치, 배추김치를 준비했다.

9월14일밤 수상은 보좌관 1명과 기타 동반자 1명과 함께 관저 식탁에 앉아 배추김치를 다 먹고 또 시켜 먹었다.

"자동차나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는다."는 수상은 "대사가 보내준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했다.

제5계절

2천년대의 도서관

유형승

(메트로토론토도서관 서지조사부장)

◇유형승씨

◇유형승씨 : 뉴욕 주립대학 대학원 도서관학과 졸업. 대전대학(숭전대학 대전캠퍼스)도서관장겸 조교수,. 한국도서관협회 전문위원및 이사역임. 현재 메트로토론토도서관 서지조사부장, 토론토대학 한국학과 후원재단 부이사장.

우리가 사는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것인가?

말세론(末世論)의 학자들중 2천년대에 지구의 마지막이 올것이라고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있다.

그러나 혹여 그러한 예언들이 빗나가서 인류나지구의 멸망이 그보다 더 먼 훗날에 온다면 우리들, 그리고 그다음 세대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

2천년대는 벌써 우리눈앞에 당도하였으니 한번생각해 봄직한 일이다.

얼마전 온타리오 도서관협회 대회에서 2천년대의 도서관이란 주제로 발표회가 있었다.

증기기관차가 사라지고, 디젤기관차로 대치되어 증기화차는 박물관 품목으로 전시되는 것과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책과 사서(司書)와 이용자들이 3 대요소가 되는 도서관은 전부 전설과같은옛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호랑이 담배먹던때"라는말이 "도서관에서 책 빌려볼때"로 변하고 우리가 읽는책, 신문, 잡지들은 모두 전산화(電算化)가 되어 안방에 앉아 TV의 화면을 통하여 읽고싶은 책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책없는 도서관이 될 것이며, 도서관의 사서(司書)들은 모두 정보브로커가 되어, 정보의 교통정리나 하고있을 것이라 한다. 얼마나 편리하고 간편한가?

눈비를 맞으며 도서관까지 가지않아도 좋고, 반납이 늦어서 벌금을 낼 필요도 없게되고, 찾는책이 없어서 허탕을 치는일도 없겠지……. 그러나 편리가 꼭 진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진리속에 사는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육체는 운동부족으로 고무풍선같이 비만해지고, 지적(知的)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속히 얻을수 있으므로 그것을 추출하기 위하여 여러권의 책들을 참고할 수고가 없으니 편식하는 어린이 같이되어 균형있는 지성인이 되기는어려운 것이 아닐까?

며칠전<그로브·앤드·메일>지의 기사에 의하면 캐나다 전국을 통하여 천여명의 국민학교 학생들이부모의 의사에따라 학교에가지않고, 가정에서 컴퓨터를 스승삼아 교육을 받고있다고 한다.

진정한 전인(全人)교육이 이루어 질까? 이것은일류학교에 가기위한 입시교육보다 한술더 뜨는 것이 아닐까? 존경할 스승이나 응석을 부릴 선배나 사랑할 후배가없는 사회 이렇게 살다보면 지구의 종말이 오기전에 우리들의 종말이 먼저 오는것이 아닐까?

등잔의 심지를 돋구며책장을 넘기던 시대는 갔더라도 책장은 손으로 넘기는 운치와 친근감, 손때가 묻은 책들, 그 책 갈피속에 누군가가 꽂아놓은 노란색 은행잎하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의 영혼을 풍요하게하는 요소들이 아닌가?

2천년대의 책하나 없는 삭막한 도서관이 우리앞에 찾아오기 전에 부지런히도 서관들을 이용하며 내가 보고싶은책, 또는 한국도서들을 더 사라 비치하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2천년대엔 우리모두 옛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눈이크고 비대하여 둥굴둥굴하게 생긴사람들이 TV화면을 통하여 옛날엔 책이라고 하는것을 열심히 읽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의 이야기를배울수 있도록 모두 이민의 바쁜생활 속에서라도 책을 가까이 하며, 생각하며, 우리의 발자국이 이 캐나다의 지도위에 어떻게 그려졌나 뒤돌아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대금리 하락 18%

모기지 이자율도 18.25%

12일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자율이 80년5월 이후 가장 큰 15%의 하락을 보이므로써 시중은행의 최우선고객에게 주는 우대금리는 18%까지 떨어지게 됐다.

로얄은행이 16일부터 대부율을 19.5%에서 18%로 내린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곧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모기지이자율은 이미 18.25%선으로 떨어졌다.

사냥클럽 주최 사냥강습 모임

지난 10월24일 사격대회를 치른 사격협회(회장 백경락)는 그날 같은 자리에서 따로 모임을 갖고 사냥클럽을 조직했다.

사냥경험자나 미경험자를 막론 애호가의 다수 입회를 바라는 사냥클럽은 오는 20일(금) 하오7시 첫 행사로 Chois식당에서 (케네디×어글린턴·이스트)「사냥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강습모임을 연다.

연락처 : 755—7635(백) 757—1097(한)

해외출판물 규제조처 완화

북한찬양 않는것이면 환영

(서울 13일=연합) 한국의 이광표문공장관은 12일 외국출판물의 국내유입에 대한 정부의 억제정책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북한을 취급한 해외정기간행물들이 북한을 공공연히 찬양하지 않는 이상 기사나 사진들을 삭제하거나 오려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어떠한 기사도 국내유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검열기준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야당의원들은 해외출판물 수입과 분배에 관한 개정법안 심의위원회에서 고 박정희대통령 통치하에서는 해외출판물 수입에 대한 규제와 검열이 극심했었다고 지적했다.

일정부 두개항로 지지설

동경·북경간 직접항로

(도쿄14일 연합)일본정부는 동경, 북경간 직접 항공로선으로 서울 및 평양의 상공을 지나는 두개의 노선 설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빠르면 내년초에 이 항로를 개설키로 일본 외무성과 교통성이 추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업가가 인기

한국여성 배우자 선택시

(서울 14일=연합) 한국의 미혼여성들은 사업가, 사무원, 교육자를 가장 적당한 배우자로서 꼽고 있고, 또한 배우자선택시 학력과 건강을 중요시 하고 있음이 통계에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여성기구가최근 한국여성들의 생활구조에 대해 통계낸 데 따르면 전국의 1,500명 미혼여성중 20.6%가 사업가를 장래의 배우자로 꼽았고, 그다음이 사무직원(15.2%), 교육자(14.3%)의 순이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 미혼여성중 반이상이 학력을 중요시했고 그다음으로 건강(20.9%) 경제력, 외모등을 꼽았다.

주간女性

결혼 축하

신랑 : 장홍원군(장홍씨 아우)
신부 : 조국형양((조병규씨 장녀)
때 : 11월21일(토) 하오2시30분
곳 : 토론토한인연합교회 (300 Bloor St.w.)
주례 : 이상철 목사

신 랑 : 최규영군 (최규호씨 아우)
신 부 : 윤육로양 (윤용로씨 동생)
때 : 11월21일(토) 하오1시
곳 : 제일장로교회 (963 Pharmacy Ave.)
주 례 : 김용출 목사

신 랑 : 계동원군
신 부 : 백남순양
때 : 11월21 정오
곳 : 순복음교회 (1 King St. Weston)
주 례 : 이희주 목사
피로연 : 차이나하우스 (하오2시30분) (Bethurst × Eglin ton)

모국어교육 정규시간으로

연구반 건의, 주말수업 대신

현재 방과후나 주말에만 실시되고 있는 모국어교육은 신청학생이 백명 이상일 경우 정규수업시간중에 포함돼야 한다고 모국어교육 전담 특별연구반이 13일 건의했다.

이 건의가 교육연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토론토내 국민학교들은 수업시간을 20~30분 연장, 모국어학습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과목은 종전 대로 영어로 실시된다.

모국어교육 전담 특별연구반의 토니·실리포 회장은 현재 토론토내 국민학교 학생의 50% 가량이 영·불어가 모국어가 아닌경우로 재학생의 70% 이상이 집에서 영·불어 이외의 모국어를 쓰는 경우에는 모국언어및 문화를 가르치는 모국어교육 시간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77년 온타리오주정부에 의해 설립, 매년 7,500 여명의 학생들이 이에 참가하고 있다.

성탄준비 특별집회

보스톤, 런던서 신부내방

보스톤한인성당의 곽길우 신부는 12월10일(목)부터 3일간 매일 하오7시30~9시30분 토론토 신자들의 성탄맞이 영적준비를 위해 쎄인·폴성당(퀸·스트릿·이스트×팔리어먼트 1블럭 이스트)에서 특별설교를 한다.

같은 시간 고백의 성사담당은 런던한인성당의 김분도 신부가 담당한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새로나온 책>

서울대동창 명부

연인원 443명·타지역131명

서울대학교동창회 캐나다지부(회장 이창회)는 올해 회원명부를 냈다.

서두에 교가(이병기 작사·현제명 작곡)를 싣고, 총회원명부에서 대학원을 비롯, 각단과대학별 회원명을 열거했으며, 지역별 회원명부및 동문업소 안내와 광고까지 곁들였다.

체재는 신4×6판(4치×6치=12cm×18cm 넓이)80면이다.

단과대학별및 타지역 동창수는 아래와 같다.

대학원 : 7명/공대 : 89명/농대 : 78명/문리대 : 99명/미대 : 16명/법대 : 20명/사대 : 39명/상대 : 24명/약대 : 14명/음대 : 21명/의대 : 19명/치대 : 17명

브리티쉬·콜럼비아 : 26명/알버타 : 38명/사스카치완 : 5명/매니토바 : 19명/퀘벡 : 37명/애틀랜틱 : 6명

이상 통계에 의하면 대학원및 11개 단대출신 총계는 443명이고, 그중 메트로·토론토를 제외한 타주 거주자 합계는 131명이다.

◇오타와 한인교회 창립5주년 기념예배(중앙, 가슴에 꽃단이가 정대위 목사 내외) 지난 8일).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에 한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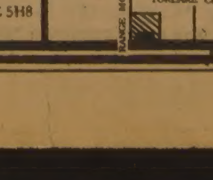
		Regular	Special
Chocolate, All Brand	36's	$ 10.69	$ 9.89
Dristan Tablet	6x24's	11.00	9.98
" Nasal Mist	6x15ml	9.55	8.79
Bicycle Playing Card			18.95
"Bic" Lighter Blister Package			.69
Glad Garbage Bag	24x10's		33.29
Bee Hive Corn Syrup	12x1L	19.75	17.79
Libby's Deep Brown Bean	24x14oz	16.55	13.39
Canada Dry(all flavour)	24x10oz		5.79
Nestea	"		5.49
Wilson Crush	"		5.29

그외에도 다양한품목에 대하여 염가특별대매출을 실시중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제6주년 기념부흥회

강사 : 이옥란 수도사

강사약력 :
- 기두온 신학교 졸업
- 오순절 성결교 신학교 졸업
- 감린산 기도원원장 15년
- 수도원 수도 7년
- 장병 선교회 회장 12년간
- 현재 일본동경 신학대학 재학중

일 시 : 1981년11월26(목)~29(일) 매일저녁 오후7시 30분부터
새벽기도 : 토, 일(주일) 오전6시
신앙강좌 : 28일(토)낮12시
장 소 : 16 THORNCLIFF PARK DR. (Woolco, Miracle Shopping Plaza 뒤)

주최 : 토론토기도원

원 장 : 심상대 전 화 : 226—2583

"너무나 황홀하다"

迂餘曲折… 콜럼비아號 宇宙서의 第2日

燃料電池 1個고장…安全엔 異狀없어

선회시간단축할듯

· 이번 콜럼비아號의 궤도비행시간을 당초의 1백24시간10분에서 약54시간정도로 단축케한 주원인은 궤도선하부중간에 위치하여 궤도비행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연료전지시스팀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3개의 연료전지유니트로 구성된 이연료전지시스팀중의 제1유니트가 알칼리수준이 정상보다 높아 콜럼비아號궤도비행지상관제소인 존슨 우주센터(휴스턴소재) 지시로 폐쇄됐다면서 이에따라 궤도비행시간 단축이 불가피하게됐다고 밝혔다.

이 연료전지시스팀은 산소와 수소를 화학반응시켜 궤도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그 부산물로 우주인 엥글과 트룰리가 필요로하는 식수를 만들어낸다.

이 연료전지시스팀은 또 3개의 연료전지가 모두가 동보화돼있으나 궤도선에 적재된 각종실험장치를 전원으로 작동시키지않을때 등 전력소모가 적다고 판단될때는 2개만 작동시킬 수 있다.

즉 콜럼비아號가 지상에서 발사돼 궤도에 진입하기전 최초의 10분동안이나 또는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로 귀환할때의 30분간은 모든 실험장비가 작동정지상태에 놓여 많은 전력이 필요없으므로 약1천~1천5백W의 전력만 공급한다.

그러나 궤도에서 실험기구를 작동시키는등 임무를 수행할 경우는 7천~1만2천W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부분이 고장났다하여 두 승무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것은 아니지만 NASA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궤도비행시간을 단축시킨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콜럼비아號의 연료전지들은 달착륙선 아폴로우주선에 사용했던것보다 크기가 작지만 그 출력은 6배에 달한다.【聯】

3개고장나면큰일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일이지만 만약우주선의 연료전지3개에 모두 고장이 생긴다면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오도가도못하게된다고 브래드·마먼나사대변인은 말했다.

비행사들은 전력이나 빛, 또 기구, 컴퓨터, 엔진, 모든것을 잃게되는것이다.

마먼대변인은 또 로킷을 컨트롤하는 밸브들도 전력으로 작동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비행사들은 재돌입을 위한 로킷점화도 불가능하게 된것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연료전지중 1개가 고장이 나고 나머지 2개가 무사하다하더라도 나사의 초보수적인 안전정책에서 볼때 예정된 5일간의 비행임무를 완수한다는것은 너무도 위험한것으로 평가된다.

氣象여건도 나빠

○…비행 첫 몇시간동안 우주선은 저 궤도를 비행했다. 예정했던 고도 2백53㎞보다 낮은 고도 2백22㎞를 날았다. 그사이 대부분의시간은사소한고장을 수선하는데허비했다.

이번 우주 비행에있어서 뜻하지않은 고장등으로 비행일정단축등 나쁜뉴스가 속출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주선이 착륙할 오는일요일(15일)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의 기상조건도 좋지않은것으로 예보됐다.

사소한 通信異常

○…12일밤 12시정각(한국시간·이하같음)에 발사예정이던 콜럼비아號는 발사 9분전 또 교신에 문제가 발생, 카운트다운이 잠시 중단되어 예정보다 10분 늦은 12시 10분(13일상오0시10분)에 발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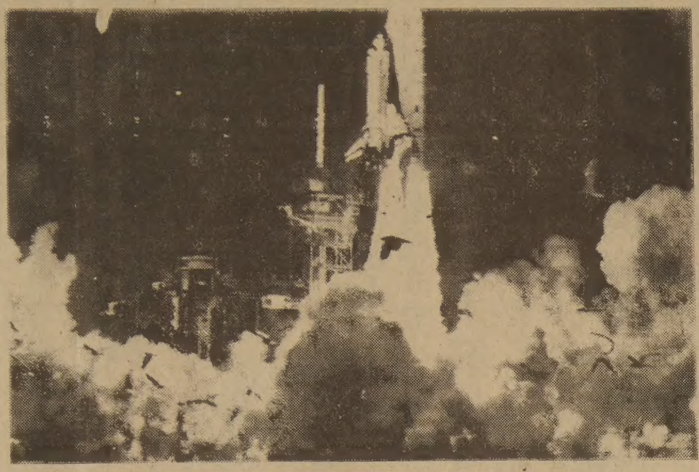
중단된 카운트다운은 12시 1분에 다시재개, 12시10분「제로!」의 카운트가 떨어지자 콜럼비아號는 발사대를 박찼다.

NASA당국은 카운트다운을 지연시킨 통신이상이 아주 사소한것이라고밝혔다.

트룰리, 生日맞고

○…콜럼비아號가 발사된 12일은 마침 두승무원가운데 한사람인 리처드·트룰리대령의 생일이어서 두승무원에게 또다른 기쁨을 더해주었다.

트룰리대령은 이날 44회의 생일을 맞았는데 우주비행사의 조반인 스테이크와 달걀및 케이크를 곁들여 조촐한 생일파티를 가졌다. 콜럼비아號의 출입문 상단엔『해피·버스데이·디크』란 팻말이 붙어있었다.



◇폭음에 놀란 새떼 미국의 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2차우주비행을위해 12일 케이프 카나베랄의 발사대를 성공적으로 이륙하는순간 수백마리의 새가 폭음에놀라 날아가고있다.【케이프카나베랄13日UPI衛星=聯合】

우주선 再使用여부 판가름

최소한의 任務마치면 歸還

맥박正常보다높아

○…콜럼비아號가 발사되는 순간 엥글 트룰리 두승무원의 맥박은 각각분당 1백20회와 94회로 정상보다 높은 수준을기록. 지난 4월 처녀비행당시 존·영 로버트·크리픈 두 승무원은 85회와 1백35회를 각각기록했었는데 발사책임자인 조지·페이지씨는 엥글과 트룰리 두 승무원이 지상보다 3배이상이라는 발사시의 초압력을 잘견디냈다고 칭찬.

말할수없이즐겁다

○…발사후 트룰리 대령은『믿기지않을 정도로 즐겁다』고 一聲을 보내왔으며 엥글대령도『유리처럼 매끄럽다』고 경탄을 보내왔다.

이에대해 지상교신담당자인 브래든슈타인씨는 승무원들에게 이번 2차비행이 콜럼비아號의 再使用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비행임을 지적, 주지시키면서 최선을 당부.

再카운트타운抗議

○…발사책임자인 페이지씨는 발사예정시간인 13일 0시10분전 관제반에 다시 카운트타운을 지시, 가벼운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

지난 4일 3개의 보조동력장치(APU)중 2개가 고장났을때 발사를 강행할수도 있었으나 완벽을 내세워 발사시간을 1주일 연기시킨것도 페이지씨의 주장때문이었다.

구경꾼중探鳥會도

○…케이프카나베랄기지주변에는 콜럼비아號가 발사되는 장엄한 광경을 보려던 구경꾼들 가운데 탐조회란 자연보호단체도 끼어들어 이채를 띠었다.

이들은 콜럼비아號 발사때 나는 굉음과 가스가 자연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것을 조사하기위해 나왔다는것.

경비2백만弗손해

○…NASA는 콜럼비아호 발사가 8일간 연기되는 바람에 시간·추가연료및 그밖의 경비등 약 1백50만달러에서 2백만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그가운데는 연료의 재주입이 들어있는데 콜럼비아호가 예정된 지구궤도의 83회선회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50만갤런들이 외부연료탱크를 채우기위해서는 5시간의 작업이 필요했다.【[illegible]=聯】

콜럼비아號의 단축日程 (한국시간)

◇14일 ▲0시=트룰리의 로보트팔 작동준비 14분방영, 궤도 17회선회 ▲상오3시2분=로보트팔 활동방영

◇15일 ▲상오1시22분=로보트팔 시험 녹화방영 ▲상오2시10분=두번째 로보트팔 시험 ▲상오6시께=캘리포니아州 에드워드공군기지에 귀환예정.

美政界「트로이木馬」波紋

스토크맨예산局長 레이건減稅政策 비난發言

共和黨、責任물어 사임壓力
民主黨、對政府 정치武器化

【워싱턴13日=曺淳煥특파원】 레이건 대통령의 대폭감세정책은 부자를 돕기위한「트로이의木馬」였다는 스토크맨 예산관리국장의 말은 엄청난 충격을 미국政·財界와 국민들에게 주고있다.

35세의 스토크맨이 12일하오 4시반 백악관에서 그의「트로이木馬」발언을『한기자에게말한 부주의한 횡설수설』이라고 표현하고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한 기자회견을 미3大TV는 이례적으로 특별방송으로 전국에 보도했다.

〈스토크맨局長

레이건 대통령은 12일 부시부통령과의 점심약속을 취소하고스토크맨을 불러 45분동안 점심을 같이하면서 자아비판을 듣고 사죄를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하지않았다고 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나 스토크맨의 문제의 발언 그자체가 이제 공화당행정부를 겨냥한「트로이木馬」로 공화당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안겨 줄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레이건 대통령도 스토크맨의「트로이木馬」가 번져갈 재앙을 염려한 나머지 사표를 반려하되 유보해둔것으로 스피크스부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백악관 성명에서 시사되고있다.

스토크맨의 對의회, 對국민관계에서 잃은 신뢰도가 회복될수 없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 레이건경제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스토크맨을 물러서게 하지않을수 없다고 공화당지도자들은 판단했다는 것이다.

스토크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아틀랜틱誌기사가 공개된 타이밍도 레이건행정부에는 매우 좋지않다는 것이다.

레이건 경제의침체로 국민들이 회의를 갖기시작하는때에 경제실무총책의 자신상실과 회의가 국민들에게알려진 것이다.

스토크맨은 12일 기자회견서 그전날 그의 대변인의 말과는 달리『아틀랜틱誌 기사는 그의 말을 정확히 인용했으며 20여페이지에 이르는 전반적내용도 지난9개월간의 사적·공적으로 말한것을 거의그대로 반영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문제된 기사의 필자가 그의 친구여서『오프·더레코드』로 말한걸로 생각했는데여기에 상호간의理解가 어긋났었다고 스토크맨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이 기자회견서 국민들이 경기침체로 고생하나 내년 여름께부터는 경제가 회복될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다음날「트로이木馬」기사가 등장했다.

참고 견디면서 희망을가져야할 국민의 경제심리에 과탄을 던져준 셈이다.

레이건이 내년 여름까지라고 말한데는 물론 경제적계산이 있었겠지만 또 82년의중간선거를 염두에둔 정치적계산이 없었다고 할수는없다.

스토크맨의 말이 공화당영내에 들어선「트로이木馬」로 어떤피해를 가져올지도모른다는 우려는 민주당이 저절로 굴러들어온 절호의 정치무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나온다.

문제는 내년여름까지 이자율, 실업률, 인플레가 어느정도로 내리고 경기회복이얼마나 잘되느냐가 민주당의「트로이木馬」활용에 크게 영향을 주게된다.

실업률이 8%로 치솟은것 하나 만으로도 내년여름까지 레이건 경제의 호전이 어려울것이라는것이 의사당주변의 공기가 되고 있는것같다.

海外토픽

姙娠중暴飮 큰영향
★胎兒서심각…기형아유발

임부가 임신초기에 한두번 폭음을하는경우도 태아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있다.

美노드캐롤라이나대학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태아알콜증후군』으로 알려진 태아이상현상은 임부가 임신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임신3주때부터 일어날수있다.

캐들린·설리크 맬컴·존즈튼 두박사가 쥐를대상으로 실시한 실험결과 생쥐를 비록 잠깐 알콜에 노출시킨 경우에도 심한기형을 유발할수 있음이 밝혀졌다는것.

쥐를 상대로한 이번연구로 새끼를밴지 얼마안돼 알콜피해를입은 쥐의새끼가 인간의 태아알콜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기형이 될수 있음이 입증됐다.【태플힐(노스캐롤라이나州)=AP】

亞洲人用 위스키
★부캐넌社 맛응맞춰 試販

스카치위스키 양조회사인 제임즈·부캐넌사는 아시아에서의 특제스카치위스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술맛과 빛깔, 그리고 술병의 도안까지를 아시아인의 구미에 맞도록 만든 새로운 스카치위스키를 싱가포르에서『試販』하고 있다고.

새로운 종류의 스카치위스키가 유럽및 미국시장에서의 시판에앞서 아시아시장에 선보인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회사는 위스키가 찬 물질로서 성행위를 방해한다고믿는 중국인들의『미신』, 그리고 흑색및 백색은 장례식에 관련시키는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감안, 불과 황금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술병의 레테르를 도안하는 한편 위스키의 중국어 표기도『피하지 않으면안된다』는 뜻을 가진 종전의 말대신「[illegible] 사람들의 행운」을뜻하는 [illegible] 바꾸었으며 그 맛도 이 [illegible]들이좋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보다 독한 맛을 냈다고.【싱가포르=AP】

체신부 새우표발행 1장에 4百원

체신부는 국제우편 이용자들의 편의를위해 4백원짜리 보통우표 (사진) 를 발행, 14일부터 판매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고액권우표는 국보급 문화재의 하나인 청자투각칠보향로를 디자인으로 했다.

◇埃사막서 벌이는「밝은별」作戰 이집트 사막에서 벌어지고있는 이집트 합동군사훈련에 참가중인 美제24해병사단병사들이 12일 사막용 위장복을입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한채사막 저편을 바라보고있다.【카이로서부기지12日AP衛星=聯合】

韓半島문제 論議

國際政治엔 異見

訪中스토슬次官

【北京12日AP·UPI=聯合】중공을 방문중인 월터·스토슬美국무성정치담당차관은 12일 외상 黃華, 부외상 章文晉등 중공고위관리들과 가진 이틀간의 회담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6월의 헤이그 美국무장관의 중공방문이래 北京에 온 최고위 美국무성관리인 스토슬차관은 이날 黃華와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중공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등 국제적 지역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우리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견해의 [illegible] 발견했다』고 말했다.

대형풍선탄 4명 13일 캘리포니아着

【샌프란시스코13日UPI=聯合】미국인3명과 일본인1명을 태운 일본 나가시마(長島)를 떠난 초대형 헬륨풍선 더블이글5호가 13일 캘리포니아연안에 무사히 도착, 사상처음으로 논스톱 태평양횡단비행기록을 수립했다.

더블이글5호는 지난10일 새벽 일본혼슈 나가시마를 출발, 5일간의 역사적인 장도에올라 13일 상오9시(한국시간 13일하오2시) 이곳에 도착했다.

對蘇禁輸결의案 채택

美上院 蘇의 波침공가능성에 쐐기

【워싱턴13日聯=聯】미상원은 12일 소련이나 그 동맹국이 폴란드를 침공한경우 레이건 대통령에게 대소무역을 전면 금지하도록 촉구하는결의안을 채택했다.

미상원은 또 지난 80년의 대소 곡물금수조치처럼 전적으로 농산물무역에만 적용되는 금수조치는 오는 85년1월이후에 모두 금지하도록규정한 입법을 승인했다.

이날 49대35로 채택된 조건부 금수촉구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것으로 소련의 폴란드침공시 자동적으로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제안대신에 통과됐다.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앞서 자동금수조치는 레이건 대통령의 외교정책수행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할것이라고 반대했었다.

그러나 로버트·버드상원민주당 원내총무는 미국의 현행정책에도 무기가 있다는것을 시위하기위해 좀더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日 이달末께 改閣說 大藏省고위관리

【東京13日聯=聯】스즈끼(鈴木善幸) 일본수상은 이달말께 개각을 단행할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大藏省의 한 고위관리는 이같이 밝히고 일본이 출초현상을 유지하고있는 對美및 대서구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내각이 제반조처들을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核의한 파멸에직면 敎皇、세미나서강론

【바티칸시티12日AP=聯】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12일 인류가「핵에의한 파멸」위협에 직면하고있으며 의회민주주의가 전체주의의 도전으로 새롭고 어려운문제를 안게되었다고 밝혔다.

요한·바오로2세 교황은「서구의 위기」라는 가톨릭교회주최의 한 세미나에 참석한 서독인및 이탈리아인 4백명을 접견하는 자리에서『오늘날의 핵에의한 자멸위협은 한 국가, 한 대륙에 국한되지않는 전인류의 문제』라고 말했다.

요한·바오로 교황은 전인류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지난 1·2차 세계대전이 모두 유럽에서 발발했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이데올로기들이 유럽에서 발생, 전세계에 퍼졌으므로 유럽은 오늘날의 세계위기 극복에앞장서야한 특별한 책임이있다고 강조했다.

메아리

엉금엉금거리는 거북은 멀찌이 따돌리고 토끼는 중도에서 기분좋게 낮잠을 즐겼다. 거북은 쉬지 않고 느긋하게 결승점에 먼저 골인했다.

세계마라톤에서 토끼의 위치에 섰던 한국이 거북으로 변신한지 이미 오래다. 세계의 토끼들은「거북과 토끼의 달리기 우화」처럼 뛰다가 쉬지않고 무섭게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한국마라톤도 결코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들을 따라 잡기란 갈수록 아득하게 되었다.

확실히 우리 마라톤은 무서운 悪循環에 빠져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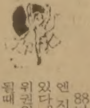
지난10월 미국의 살라자르선수는 2시간8분13초로 마라톤세계신기록을 더욱 단축시켰다. 이에비해 우리는 여전히「魔의 20분대」에서 맴돌고 있는 딱한 형편이다.

세계신기록이나온 금년에 우리마라톤은 작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지난해엔 19분대 선수가 3명, 20분대가 3명이었는데 올핸 19분대 선수가 겨우 1명밖에 안나왔다.「거북의 현주소」를 알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대로 한가닥 위안은 기록은 부진해도 새로운 얼굴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千里길 골인

마라톤은 超人的인 고행의 경기다. 체력의 한계, 자기감정과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한다. 날씨의 영향까지 받으며「인내의 完走」가 2시간동안에 압축된다.

이고행은 의학적인 수치가 증명한다. 달리고나면 체중이 1.5~2㎏이나 줄어든다. 에너지 소모량도 크다. 인체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평균 2천4백 칼로리로 잡는다. 마라톤선수는 2시간에 5천5백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나무엔 지금 갖가지소망이 움트고 있다. 이중 하나가 마라톤 상위권의 기대다. 이 꿈이 실현될때 우리는 올림픽축제를 마련한 노고를 한꺼번에 보답 받을수 있을것만 같다. 거북이 스피드 있는 토끼로 다시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라고 믿는다.

오늘 京釜大驛傳의 준족들이 6일간의 치열한 선두 다툼을 끝내고 여의도 의사당 앞에 골인한다. 서울올림픽을 내다볼때 이번 레이스의 뜻은 더욱 새롭다. 27번의 年輪을 쌓은 京釜大驛傳은 마라톤 한국의 새로운 스타가 나오리라는 열망을 안고 있다. 전국에 마라톤 열풍이 일기를 바란다.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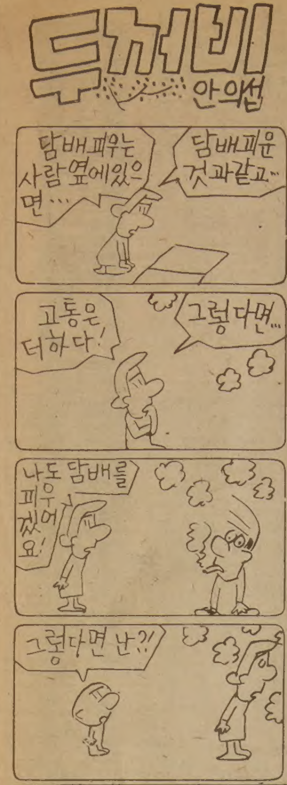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히로퐁 百億臺密造 日暴力조직에 暗賣

7명에令狀

서울시경은18일 대규모히로퐁 국제밀제조 판매조직을 적발, 주범 金亨毅씨(57·서울城東區上道洞244의21)·일본인 오오이시·다까시씨(49·일본京都 左京區高野畑町32의13)등 7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하고, 자금책인 한일화학대표 鄭潮煥씨(41)를 입건했으며 부산의 암달러상 康根實씨(55·여)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퐁완제품 5kg과 미완성액체15ℓ, 제조기·여과기등 38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의하면 주범 金씨는 지난 4월16일 서울西大門구치소에서 복역중 고혈압과담노병으로 병보석, 서울시립永登浦병원에서 가료중 도주했는데 공범崔奎鍾씨(58·서울永登浦區 上岩洞서강여관 주인)로부터 히로퐁원료 60kg을 4천20만원에 사들여 범리시현사인 李海秀씨(49·서울冠岳區黑石洞77의17)등 2명의 제조업자를 시켜 33·6kg의 히로퐁완제품을 만들어 일본인 오오이시씨와 康씨등에게 9천4백60만원에 팔았다.

또 한일화학대표 鄭씨는 접착제를 생산, 연간 30만달러이상의 수출고를 올리는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주범金씨의 권유로 밀조자금 9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익금에서 5백만원을받았다.

일본인 오오이시씨와 재일교포 朴龍鎭씨(57)등은 金씨로부터 히로퐁 18·6kg을 지난4월부터 6차례에 걸쳐 kg당 일화 3천만엔에 사들여 일본의 폭력조직을통해 kg당 6천만엔씩에 팔았다는것이다.

경찰은 金씨등이 지난4월부터 충북中原郡과 강원旌善郡의 농가를빌어 완제품 50.6kg을 만들어 이미 33·6kg을판매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주범金씨가 일본 오오이시씨로부터 받은 일본긴끼상호은행 발행 1백만엔짜리 수표18장이 모두 위조수표인 사실도 밝혀졌다.

處女全裸피살 밭에서屍體발견

【釜山=聯】 13일 상오10시께 釜山市東萊區上3洞139 담산밭을 대나무발에서 金덕자양(19·釜山시 東萊구回東동133의2)이 옷이 벗겨진채 숨져있는것을 金양의 아버지 金영호씨(6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大法院, 내달부터 監督강화

"辯護人없는 裁判없게"

「國選」활용…不誠實변론땐 징계

대법원은 13일 국선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기능을강화하고 자력이 없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을 활용할 수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한 「국선변호인 선정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만들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규칙은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불성실하게 하는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을 취소하고 그 변호사를 대한변협과 소속변호사회에 통보, 변호사법에 정해진 징계조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은 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경우 국선변호인 없이는 공판개정을 할수없도록 했으며 국선변호인자격은 종전대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생으로 제한하고 관할구역내에 변호사가없는 단독 지원의 경우에는 인근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은 이밖에 미성년자·고령자·농아자·심신장애자·단기3년이상 징역해당자등에 대해서는 빈곤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없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수있다는취지를공판개정전에재판부가반드시고지시키도록했다.

7년만의 相面 "天馬圖공개"

—어제 國立博物館서 文公委員등 "歎聲"

아름답고 힘찬모습…색깔은 엷어져

完璧한保存·木製品제조시급

73년 慶州서출토 百20×90cm 아크릴箱子에 보관

天馬圖가 13일 7년만에 공개됐다. 오랜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天馬圖의 말은 여전히 힘차게 하늘을 달리고 있었다. 출토때보다 색깔이 엷어지고 균열이 늘었으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天馬圖는 이날 상오11시 국립중앙박물관 2층 격납고에서 국회 문화문공위원들, 관계자들에게 공개됐다. 그동안 보존상태가 수수께끼에 쌓였던 天馬圖를 약20분간 둘러본 문공위원및 관계자들은 아름답고 힘찬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완벽한 보존방법이 없는것을 안타까와했다. 73년8월22일 慶州市皇南洞155호 고분(天馬塚)에서 출토된 天馬圖는 74년10월 일반에게 한번 공개된후 지금까지 공개된일이없었다.

天馬圖(53cm×75cm)는 세로 1백20cm 가로90cm 크기의 아크릴(두께1cm)상자속에 보존돼 있었다. 맨밑바닥엔 살균제를칠한 건조시킨 韓紙를 깔고 그위에 방충제를칠해 건조한 노란粗布를 덮었다. 다시 이위에 노란스펀지板을 깔고 그위에 天馬圖를 고정시켜 놓았다.

보존상자안에 습도를 조절하기위해 窒酸소듐(NaNo3)포함용액을 두개의 비커에 담아 구석에 배치하고 温濕度計를 상자벽에 장치한 다음 밀봉시켰다. 상자전체를 녹색커버로 씌워 그림이 광선에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아놓았다.

崔淳雨국립중앙박물관장은『藥劑가 그림에 닿지않도록 하면서 상자안을 살균·방충시키고 상자내 상대습도를 60~70%, 15~25도의 온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이같은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존상자안의 天馬圖는 습도가 맞숙만 못해서인지 발굴당시 보다는 색깔이상당히 엷었다. 균열도 대단히 심했다. 말의 머리위쪽과 뒷다리쪽은 불안한마음을 안겨주었다. 특히 뒷다리쪽은 균열보다는 망가져가는 느낌마저 들정도로 여러조각이 나있었다.

崔淳雨관장은『발굴당시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왜 색깔이 엷어졌느냐』는 李寧熙의원의 질문에『天馬圖는 白樺樹皮(자작나무껍질)를 두장을 겹쳐누벼서 고정시킨다음 天馬와 무늬를 채화(彩畵)한 세계적으로 휘귀한 예술품으로 이이상의 보존방법이 없다』고 밝히고『장래를 위해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어 두는것이시급하다』고 말했다.

『왜 신라유일의회화를국보로 지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崔관장은 보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국보로 지정하면 문제가 많기때문이다』고 보존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인했다.

74년5월 문공부의 초청으로 방한했던 프랑스국립고고학연구소장 골리에바사와 川原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실장 히무찌 박사도『天馬圖같은 유물을 완전히 보존하기는어렵다』고 지적『天馬圖의 경우는 白樺이나 그림판중 한가지를택해 잘보존해야할것』이라고 말한바있다.

【李炳日기자】

◇국회문공위원들이 天馬圖의 보존상태를 살펴보고있다. 왼쪽으로부터 韓炳采위원장 吳制道 朴在旭 李寧熙의원.

에너지아끼다「不請客」이…

절약형感氣유행

아파트住民등 초겨울苦生

單獨주택·빌딩街도 18度도안돼 "補助난방"

입동추위이후 절약형감기가 유행이다. 환절기니까 감기가 어느정도 나돌만하지만 올겨울엔 기름을 아끼느라고 난방시간을 애당초 줄이는 곳이 많아 아파트촌은 물론 단독주택이나 빌딩가에는 이 절약형감기가 급증하고있는게 올겨울초의 특징.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어차피 기름을 넉넉하게 땔수 없는 처지니 사람의 몸이「낮은기온」에 맞추어 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단계적으로 난방시간을 줄여가는 생활의 지혜는없는가고 말한다。이래저래 올겨울엔 감기가 극성일 전망이다.

정부綜合廳舍 일부사무실 電氣히터使用

室內온도 단계적으로 낮추는 지혜필요

◇종합병원 소아과에몰린 어린이감기환자。이들중에는「절약난방」때문에 감기가 든 환자들이 많다.

서울江南區 M아파트의 경우 올해 난방예산은4억6천만원으로 지난해와같은수준, 중앙집중난방식인 M아파트는 하루벙커C유 1만1천ℓ가 소요되는데 지난4월인상에이어 다시유가가 인상될것같자 난방시간을 가급적줄여 아침에는 불을 때지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충분한 난방에길들어져있던 주민들이 자다가감기에드는 일이많아졌다.

서울中區草洞 J빌딩은 지난11일부터 난방을 시작, 상오7시10분부터 1시간20분정도 불을넣어준뒤 하오에는 가동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난방면적 5천평인 이빌딩은 지난해 경유7만3천ℓ, 벙커C유 23만8천ℓ를 소모했는데 올해에는 경유7만5천ℓ 벙커C유25만ℓ 정도가 필요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난4월19일의 유가인상으로 20%정도부담이커져 이같은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는것.

이때문에 갑자기 실내온도가 기준치인 18도에도 못미치자 각입주사무실에서는 금지를 어기고 전기히터등 보충난방설비를 쓰고있으나 이빌딩관계자는 일일이 체크한수없어 방관하는 상태라고털어놓았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종합청사도 마찬가지여서 외부온도가 섭씨5도이하일때 난방해주고 실내온도를 18도로 유지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사무실위치에 따라서는 18도이하여서 대부분 전기히터를 하루종일 켜놓고 있다.

또 일반가정에서도 보조난방기구를 사용하고있지만 큰효과가없어 어린이들이 감기에 많이걸리고 있다.

특히 대부분 중앙집중 난방식인 고급아파트일수록 감기환자가 많은데 난방시간과비 난방시간의 실내온도차가 너무 크기때문.

서울江南區 大峙洞 S아파트는 새벽 4~5시와 저녁 7~8시 두차례 난방이 되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밤마다 전기장판을깔고 살고있다.

주부權福玉씨(28)는 위치가 1층이라서 더추워 가족5명이 10여일전부터 모두 감기에걸려 병원·약국신세를 지고있다고 말했다.

權씨는 지난달 난방비로1만원을냈는데 하루종일 난방을할경우 3만원도 넘을것이어서 대부분의 다른주민들도 이같은 부담을 우려, 더이상의 난방을 건의하지 못하고 있다는것.

서울冠岳區新林3洞 N아파트는 온수가 이틀에 한번 저녁에만 나오고 난방은 아침·저녁2시간씩 가동중인데 주민들이 낮에도 파카등 방한복을 입은채 산다.

醫療人 정기補修교육 義務化

紛爭땐調停…罰則완화

개정안 閣議의결, 醫師·漢醫師·간호원포함

앞으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원·간호원등 모든 의료인은 정기보수(補修)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이에 불참하는 경우 자격정지등 처벌을 받게된다.

13일 국무회의가의결한 의료법개정안은 이같은 의료인의 보수교육의무화와함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의료분쟁의 조정제도를 공식채택하고있다.

개정안은 또 종전의 의료인만이 할수있도록 되어있던 의료적출물 처리를 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자도 처리할수 있도록하고 종전법률사항으로 했던 전문의의전문과목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도록해 의학발전에 따라 그때그때 전문과목을 더 세분화 할수있는 길을 터놓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종합병원등 의료기관 주변에서 환자의 다급한 심리를 악용, 환자를 유인해 빼돌리는 행위가 적발될경우 5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충벌규정을두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벌칙은 체형형벌위주보다 벌금형·행정처벌 위주로 완화시켰다.

계곡에 男子변시체

龍馬山 20代 軍靴끈에목졸려

13일 하오2시께 서울東大門區面牧3洞 龍馬山에서 27~28세가량의 남자가 군화끈으로 목이졸려 숨진시체로발견됐다.

이남자는 얼굴과 팔꿈치무릎등에 찰과상을입고 신발은 신지않고있었는데 목을 군화끈으로 5차례감아 살해된시체로 반드시 누운채 발견됐다.

이남자는 살해된지 1~2일이 지난것으로보였는데 감색하의에 런닝셔츠 차림이었으며 신원을 밝힐만한 소지품은 전혀 발견되지않았다.

시체가 발견된 장소는 龍馬山중턱의 산책로에서 5백여m떨어진 인적이드문 계곡으로 묘지와 잡목더미가우거진곳이다.

경찰은 이남자가 살해후유기된것으로보고 신원을수배하는한편 인근주민들과 산책객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벌이고있다.

高大生 6명에 原審확정 宣告

징역 1년~8월

서울형사지법항소5부(재판장 盧永斗부장판사)는 13일 지난5월 高麗大교내시위와관련, 구속기소돼 1심에서 최고징역 1년에서 최하징역8월까지 선고된 姜祝鮮 피고인(21·경영학과4년)등 6명에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등 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姜피고인등은 지난 5월15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高麗大중앙도서관앞뜰에서 「高大학우여, 분노의 5월을 상기하자」는등 반정부구호를 쓴 유인물 수백장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姜祝鮮=징역1년▲金永浩(21·신문방송학과3년)▲金容喆(21·체육학과2년)▲南海蓮(22·여·국어교육과3년)▲李相炫(21·경영학과3년)=이상징역10월▲李正錫(19·전기공학과2년)=징역·단기8월·장기10월.

서울大 油印物사건 3명 抗訴기각

징역1년·8월宣告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盧永斗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5월 서울大 불온서적 판매및 시위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朴書祚(22·경제과2년)·奇椿(22·정치과3년)·申根秀(20·경제과3년) 피고인등 3명에 대한 반공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항소를 모두 기각, 朴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8월에 자격정지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朴피고인은 지난해 5월 공산주의사회를 찬양한 내용의「유물사관과 현대」·「자본론의 세계」등 불온서적 2권을 빌어 탐독한 뒤 이를 사진판으로 8백부를 인쇄해 奇피고인등을 시켜 서울대생들에게 판매토록 의뢰했고 奇·申피고인등은 이중 1백25부를 학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대그우드·범스테드씨! 집수리를 하기로 약속은 항상 하면서도 한번도 안하시잖아요!"
"예를 딱 하나만 들어봐"
"지붕수리를 안하셨죠. 수도꼭지와 뒷문수리도 안했죠"
"그래, 당신이 그걸 못한다는건 내가 알지! 예가 세개야…나는 딱 하나만 들어달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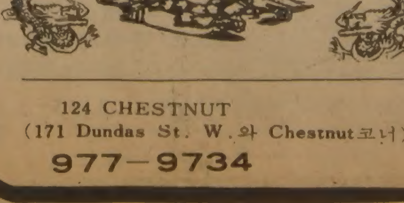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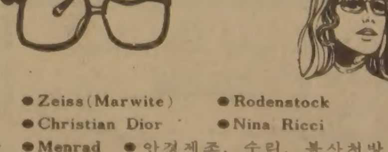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MARVIN STA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 성 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GMAC이자율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루어안경

● Zeiss (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샵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2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 (B), 286-1548(R) M3B 1Z3

두실협회장단후보 지상공개토론

협동조합위해 4개도매상 설치, 임후보
조직확대위해 구역장제도 설치, 차후보

문：회원의 입장으로 서는 설립운동의 현재 성과와 무엇이어려운 점인지막연하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좀더 알려주었으면…

김：임후보측에 묻는다. 공약에서 협동조합 설립후 예상되는 이윤을 5~7백만 달러로 잡았는데 그만한 이익이 나오자면 총매상이 적어도 2억달러는 돼야 할것이다.

총매상이 그정도 되려면 우선 막대한 조직및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공약중의 5백만달러란 금액은 현회원들이 주에 2번 도매상에서 평균 3~5백 여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할 경우 현존 도매상에 주는 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문：협동조합이란 쉽게 말해 일종의 도매상이라 했는데?

최：그렇다. 우리 계획으로는 토론토에 4개 정도 도매상을 만들어 물건을 공동구입하고, 공동으로 나눠쓰자는 것이다. 거기서 회원들이 얻는 이익을 재투자해서, 예컨대 빵공장을 설립 한다든가, 또는 간접적인 재투자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에 충당하는 등의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시일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므로 앞으로 2년이란 임기동안은 협동조합의 출범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조합이 추진되려면 6백명 회원중 적어도 몇명이나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는지?

임：한 80%는 참여해야겠고, 또 참여 할것으로 생각한다.

차：조합의 체제나 회원의 참여도가 어느정도 필요할지등 모든 것은 집행부로서 각계각층에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 하겠고 되도록 많은 참여를 목표로 하겠다.

HIT도매상 같이 개인 기업화 해버리는 전철을 밟지않도록 해야겠고, 1주에 3백만달러란 한인업체의 도매상 구입금액중 얼마를 조합이 흡수할 수 있을 지는 큰 과제로 남는다.

문：임기중에 완전설립이 불가능하다면 당장 필요한 출자금을 어느정도로 보는지?

차：설립의도는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분명하지만 구체적 사업계획은 현단계로서는 밝힐 시기가 못 된다.

임：우리는 현 조합추진위와는 달리 각계각층의인사를 초빙, 추진위를 재구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이외에 본사측은 메트로·뉴스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책, 유급회장제도 실시에 대한 의견, 한인 비지니스맨들의 장래비전 설정을 위한 연구계획, 여성 회원들을 위한 특별사업, 3개 신문을 이용한 실협뉴스 전달등에 관해질문했으나 특기할 만한 답변은 없었다.

임원진 유급문제에 관해서 임후보측은 "시기상조다" 차후보측은 "별 의의를 못느낀다"고 답변했다.]

식성 보면 성격 파악
뭐든지 잘먹으면 가정충실파

아무거나 잘 먹는 먹성좋은 사람은 가정·직장·종교에 충실하며 별미만을 즐기는 식도락가는 독신일 경향이 많다고 한 통계가 주장했다.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결론내린 이 통계는 미국민 수백명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결과 밝혀진 것.

이 조사는 야채만을 먹는 채식주의자, 굳등 맛있는 것만 골라먹는 식도락가, 몸에 좋다는 음식만골라먹는 보건식품주의자, 햄버거건 인스턴트 식품이건 닥치는 대로 맛있게 먹는 식성좋은 사람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분류했다.

채식주의자의 공통된 특징은 경쟁정신이 희박하고, 지적인 활동을 즐기고 체중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며 자신을 섹시하다고생각한다.

식도락가는 일반적으로 심미주의자들이며, 개방적이고, 혼자 살거나 동작이 빠른 비단체경기를 좋아하고 마약을 가끔 즐기기도 한다.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먹는 헬스푸드파는 채식주의자나 마찬가지로 지적 활동을 즐기고, 우울증이 있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을 "별다르다"고 본다.

끝으로 패스트·푸드이나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이고 가정과 직장, 종교를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이 통계는 밝혔다.

먼데일 방한

(서울 17일=연합) 17일 한국외무부는 월터·먼데일 전 미부통령이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11월24일~25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먼데일의 이번방한에는 전 극동아시아및 태평양문제담당 국무성차관보 리챠드·홀브룩씨등 4명이 수행한다.

〈독자의 소리〉

실협 선거전에….

최 충 식

세계적인 주먹의왕"알리"가 또다시 링에 오른다 해서심심찮은 화제가 되고있다. 그의나이 37세 인데도 권투팬들은 그의 멋진 주먹솜씨를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나친 욕심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요즈음 한인사회에 큰 관심과 흥미를 돋우는 멋진 대결이 한인실협인협회 내에서 벌어진다는데 자못 흥분을 자아낸다.

15만달러를 주무르는 실협의 집행부를 구성하는협회장 선거전이 그것이다.

이번 실협만큼 한인사회에 공공연한 정책대결로의 선거양상은 이민역사상 처음있는 선거전이 아닌가한다.

과거 한인회장 선거양상의 경우 선거후 부회장이 회장을 몰아내고, 회장이되려는 하극상에서부터 중도에 회장, 부회장이 하차하고 혼자남은 부회장이 잔여 회장임기를 메우는 주대없는 입후보팀이 있었음을 미루어볼때 실협의 경우 그러한 염려는 놓아도 될것 같다.

입후보한 두팀에서 공통적으로 느낄수 있는점은어떤 사명감으로 협회원들의 이익과 발전, 나아가서 앞으로 한인사회의 복지까지, 즉 협회원들의 먼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을 제시했다는데 교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

여기서 입후보한 두팀의 정책을 비교하여 결정을내리는것은 실협회원 각자의 권리요 의무라 하겠으나, 나름대로 바라고싶은 몇가지를 든다면,

그 하나는 이번선거는비단 실협인들뿐 아니고, 전교민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인 만큼 끝까지"파인 플레이"로 한인사회에 모범을 보여달라는 부탁이며,

둘은, 민족의 약점인 지연, 혈연, 동창및 동향관계를 떠나서 협회의 이익이 되고, 나아가 나의 이익과 전 동포의 이익이되는 길을 염두에두고 투표하여야 하겠고,

셋은, 선거후 절대로 후유증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위 세가지외에 더 구차한 설명의 필요성은 없겠으나, 선거를 치른후가문제라 하겠다. 승자와 패자의 마음가짐 여하로 실협의 운명이 자우된다고하면 지나친 염려이겠지만지금까지 단결된 모습으로커나온 한인사회에서 가장모범적 단체인 실협이기에혹자는 선거후를 염려하는것이다.

이곳 동포사회에 국가관을 달리하는 흑백논쟁으로 극과극을 달리는 뒤숭숭한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착실히 키워온 각종단체들은이제 그 모범생의 행동을 볼수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겠다.

필자는 이민자의 길을함께 걸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글을 쓰면서 정정당당히 대결하는 두팀에 격려를 보내며, 협회의 전진한 발전으로 교민사회에이바지 되어줄것을 바란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94)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그 자신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백인이 처음 왔을때 갖고 있던 총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조차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어떤 도구나무기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해가 바뀔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행동이 격해갔다. 만일 그자신이 샤만이 아니었던들 그는 조롱거리가 되었을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사냥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가끔 자기의 무기가 사냥에 적합하지못하다고 변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점차 무서워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는 아주ㅌ가죽은지 5년째까지 계속됐다 그러자 가꾸미가 장가를들 때가 됐다. 이것은 보통의 이할미우트가 결혼할 시기가 훨씬 늦은 스물두살때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꿈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을 맞아드리는것이 늦어졌다. 그는 아주 어린 소녀를 아내로 맞았다. 주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자기의 생애를 괴롭혔던 불만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그녀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그리고 어느날 밤 부부가 알몸으로 이글루속의 침상에 누웠을때 그는 호수밑바닥에서 만난 흰 귀신과 싸움을 한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그녀는 어린애보다 더낫지 않은 어린소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넘겼다. 또한 가꾸미가 말하는 견디가 어려운 무서운 꿈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쓴다는 풍부한 물질에 대한 환상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여러사람이 보는앞에서 그녀는 남편에게서 들은 얘기를 갖고 공공연히 그를 조롱했다.

"당신은 몽상가라고요! 나는 당신의 애를 배서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당신의 머리와 마음속에 차있는 꿈따위로는 어린애를 키울수가 없어요. 나의 이 부드러운 젖가슴을 채울수 있는 어떤것이든 좀 쥐서 내가 사냥꾼사내에게 시집온것을 알도록 해보라구요" 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그때 가꾸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 수 있었으랴 부인에 대한 사랑이 한개의 화살이 날아 한마리의 토끼가 죽는것처럼 죽어버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캠프에 다시 먼동이 트기 전에, 가꾸미는 들판으로 나가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설사이 없이 내린 눈은 그썰매자국을 덮어버려서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는 아무한테도 자기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부인까지도 그가 얼어붙은 들판을 넘어 단신으로 백인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 나설만큼 미쳐버렸다고 믿지 못했다.

백인의 무역소는 20세기가 바뀔무렵까지 이할미우트에게는 알려져 있지 못했다. 그래서 백인을 찾아 간다는 것은 하얀 달의 표면 같이 멀고 또 실제로있을것 같지 않은 곳으로 간주되었다. 이사람들은 타이렐씨의 방문으로 백인이 있다는것을 알았고 또 언제인가 그들의 땅을 지나갔다는 "항거얄라"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과장 되고 왜곡된 이야기를 통해서 백인들을 알고있었다.

그는 백인들이 살고있다는 이글루 우자릭(돌로 된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글루 우자릭은 처칠을 두고 하는 말인데 사뮤엘 허언(SAMUEL HEARNE)이 북극에서 불란서 군과 싸울때 지어놓은 요새가이제는 보기 싫은 회색의 돌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에스키모들이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이글루 우자릭은가꾸미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개썰매를몰고간 목적지였다.

그것은 쉬운 여행이 아니었다. 3일간의 고된 여행끝에 이할미우트의 땅에서 벗어나 수림지대에 도달했다. 이수림지대야 말로 이할미우트가 무서워하는곳이다. 왜냐하면 이지대에는 언제서부터인지 알길이 없지만 오랫동안 내륙에 살고있는 에스키모에게 적의를 품고 피를 보고야 마는 무서운 인디언 들이 사는 고장이며 또 인디언편을 드는 온갖 귀신이 득실거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꾸미는 평원을 건너 수림지역으로 들어가보니 바렌의 얼음처럼 딱딱한 눈은 그의 길고 좁은 썰매에 적합했는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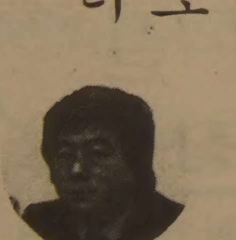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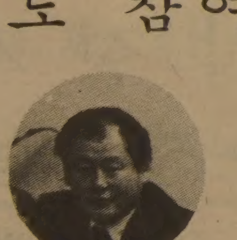
"북미의 25時를 지켜보는 한국일보는 휴식이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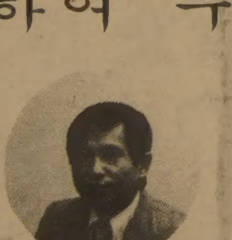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너도나도 참여하여 우리권익 보호하자!


차선겸(회장후보)


김이열(부회장후보)


조기연(부회장후보)

존경하는 실업인협회 회원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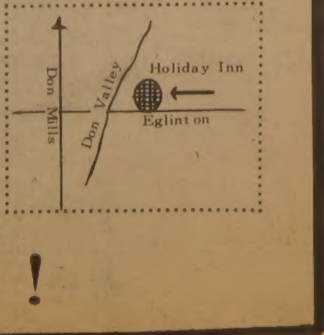
본협회의 총회가 오는 26일로 다가왔읍니다. 하루하루 바쁘신 일과에 분망하실줄 아오나 이제, 잠시 손을 놓으시고 우리 함께 한자리에 모이여,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갈길을 의논하십시다.

그간 협회의 활동이 다소 마음에 섭섭했다 하더라도 외면치 마시고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는 경제적인 난관을 우리 함께 극복 하십시다.

●총회일시：1981년11월26일(목)오후6시
●장 소：DON VALLE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AST
(WYNFORD DR. 입구로 들어감)

※이시간 러쉬아워를 염두에 두시고 출발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한인 실업인협회 회입후보팀
회장：차선겸
부회장：김이열
부회장：조기연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실익 추구하자!

"公共料金 필요땐 引上"

申부총리 TV對談 金利·換率 충격조치 안해

지금은 不景氣 아니다

종합적인 浮揚策 못쓸형편

賃金引上은 勞使간 協議로

◁申秉鉉부총리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3일 금리와 환율은 국내물가추이등에따라 자동조정되어야하며 인위적인 충격조치는 가급적 피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저녁 KBS、MBC·TV를 통해 한국 업계등 관계인사와 가진 「부총리와의 對話」 프로에서 申부총리는 原油價인상을 비롯한 교역조건의 악화、국제고금리에 따른 對外이자추가부담으로 지난해와 금년 2년동안 산유국과 채무국으로 流出된 국내소득이 무려 46억달러(약3조2천억원)에 이르고 지난해는 凶作까지겹쳐 결국 이를 부담해야하는 기업과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7%선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비춰 지금의 경제상황을 不景氣로 보지않으며 부족한 外債사정때문에 종합적인 부양책이나 지나친 경기진작은 할수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가동률이 시설10%확장에도 불구、70%수준이 유지되고있으며 자금난 문제도 지난9~10월들어 부도율이 0.1%로 높아졌지만 작년동기의 1.7%내외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수출을 비롯, 對外경쟁이 불가피한 개방경제체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플레기대심리 제거라고 강조하고 기업 근로자 농민 일반소비자등 각계 利害집단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주다간 전체경제운용에 차질이 생기며 정부의 추곡가14%인상, 임금인상自制촉구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해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公企業의 능률화를위한 운영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公共料金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요인이 있을때는 현실화하여 적자를 국민들이 메우는일이 없도록하겠으며 기업부담완화를위한 특별소비세인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賃金억제선 10%제시는 정부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서 강요할 생각도 그렇게 할수있는 정책수단도 없으며 어디까지나 勞使協議에의해 결정될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과다한 인상을 自制하기를 호소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과거에도 우리경제가 인플레 斷切의 기회를 여러차례 가졌지만 그때마다 경제적 利害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여 주저앉은 前例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도 고통分擔을 위해 공무원봉급인상억제, 일반경비절감, 國公債발행규모 축소와 지원등 의지를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에 안정기반이 구축되면 우수한 노동력과 기업의 창의성으로 우리경제전망은 밝으며 최근의 銀5억달러 借款이 종래에비해 가장유리한조건으로 이루어진것은 한국경제에대한 對外信認도 여전히 높은것을 반영한것이라고 말했다.

教育費 控除制 신설합의

月給30萬원미만 中高生子女2명

讓渡稅기초공제百50萬원

기타所得2百萬원까지 分離課稅

財務委稅法小委

국회財務委의 稅法審査小委(위원장 鄭暉東의원)는 13일 所得稅개정안중 月定給與30만원이하 서민층의 直系卑屬2人이내의 中·高校生 자녀들의 入學金 수업료 公納金등 全額을 課稅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교육비控除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小委는 이날 民韓黨이 제안한 교육비공제제도의 신설을 받아들이기로 합의, 신설에 따른 學費보조금과의 일부중복을 피해 학자보조금을 근로소득세액에 통합시키는 문제등을 정부가 검토키로 했다.

小委는 또 이날 「讓渡所得의 기초공제액」은 현행9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인상토록하고(民韓黨案2백만원) ▲의료비 공제액은 年24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며(政府案) ▲분리과세의 기타 所得額은 年2백만원이하로 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보험료 공제는 年24만원(정부案)으로하기로 합의했다.

小委는 이밖에도 醫師등 高所得자영업자의 稅負擔문제、日雇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등의 문제는 오는 16일 다시 심사키로했다.

이날 小委에 앞서 民正黨의 小委위원들은 근로소득공제의 下限線과 월30만원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稅額控除를 정부原案의 범위에서 소폭上向조정하기로 했다.

모든 公務員 「服務선서」

어제閣僚등 青瓦臺에서

성실·所任완수·不正拔本

全대통령、"要式행위아닌 生活化" 당부

全斗煥대통령은 13일 상오 청와대에서 南悳祐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金璟元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로부터 法令및 명령준수、정직과 성실한 職務수행、능동적인 봉무자세、機密유지、부정의 拔本등을 다짐하는 5개항의 服務宣誓를 받았다.

이날 복무선서는 정부기구축소와 人事개편이 끝남에따라 모든 공직자들이 心機一轉해 새로운 자세로 일할것을 다짐하기위해 국무위원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원복무선서를 갖기로 한데 따른것으로 모든공무원들은 이달말까지 各部處별로 이같은 복무선서를하게된다.

全대통령은 이날 선서가 끝난뒤 『모든 국무위원은 이번 선서가 要式행위에 그치지않고 반드시 선서사항이 실천에 옮겨질수 있도록 공무원풍토를 조성해 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복무선서에있어 宣誓文 2部를 작성、1部는 임명권자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部는 본인이 보관토록 하여 생활화하도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모든공무원에게 理念교육을 강화、공무원이 새시대 主體로서 개혁의지와 사명감을 갖도록하고 正義실천과 부정부패배격、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事安逸을 배격하는 신자세를 확립토록 할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취임때 취임선서를 하도록 돼있으나 이번과같이 국무총리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복무선서를 하게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청와대 복무선서에는 南총리、李漢基감사원장、申秉鉉부총리、盧信永안전기획부장과 각부장관(李奎浩문교、高建 정무제2、李正五과기처장관은 해외출장으로 不參) 金永均법제처장、李相浩원호처장、朴英秀서울시장、徐文煥비상계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公職者 服務宣誓 〈全文〉

本人은 公職者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나의 사명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一、본인은 法令을 遵守하고 上司의 명령에 복종한다.

一、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職務에 전념한다.

一、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所任을 완수한다.

一、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知得한 機密을 절대로 漏泄하지 아니한다.

一、본인은 正義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拔本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것을 서약합니다.

各部處別 선서시작

각부처는 공무원복무선서를 13일하오 교육부를 선두로 시작했다. 교육부는 이날 상황실에서 2백50명의 본부직원들이 李奎浩장관앞에서 일제히 선서를 했다. 각부처의 복무선서는 이달말까지로 돼있으나 대부분의 부처들이 이주안에 선서를 할것으로 보인다.

콜럼비아號 로보트 팔實驗

어제予正발사 軌道순회중 한국上空도 통과

연료실고장…내일 上午4시 歸還예정

【케이프카내베랄(美플로리다州)13日AP聯合】케이프카내베랄의 39A발사대를 출발한 콜럼비아號는 13일 지난4월에 이어 두번째로 지구궤도비행을 시작、14일 상오3시2분(한국시간)에 로보트팔의 활용을 실험한다. ★관련기사 3면

콜럼비아號는 그러나 궤도진입직후 연료실에 이상이 발견돼 1개연료실을 폐쇄함으로써 당초 5일간으로 예정된 비행일정이 이틀간으로 단축됐다.

조·엥글과 리처드·트룰리 두조종사는 콜럼비아號 3개 발전연료실 가운데 제1번 연료실의 알칼리수준이 정상보다 높은것을발견、지상관제소측은 이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나사 관리들은 연료실의 이상으로 「최소한의 비행」이 불가피해졌다고말하고 이에따라 오는18일 상오로 예정된 콜럼비아號의 귀환시간이 15일상오4시께로 앞당겨졌다고 전했다.

日程연장 여부 사전豫見 못해

【케이프카내베랄13日聯合】미항공우주국(NASA)의 닐·허친슨 비행국장은 13일 이날 0시10분(한국시간) 발사된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비행계속여부가 일일베이스로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당초 계획됐던 5일간의 임무일정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국通過 10回예정 故障일으켜 1回만

【서울=聯合】지구궤도를 선회중인 콜럼비아號는 당초계획대로라면 모두 10회에 걸쳐 한반도 남단 상공을 통과하게 되어있었으나 동력전지고장으로인한 비행시간 단축으로 인해 단 한번만 한국상공을 통과하게 됐다. 14일 낮11시50~12시20분께 서울-춘천을 지나는9번째궤도를 통과할 예정으로있어 관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釜山·서울 大驛傳·경주 오늘낮 議事堂앞 골인

하오2시39분께

★관련기사 7면

"保護觀察制 전면도입"

豫決委部別審 주요우체국換 온라인化

국회는 13일하오 豫決委의 5개分科委를 일제히 열고 소관 부처로부터 새해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들은뒤 질의에 착수했다. ★錄音2면

豫決委는 이날부터 5일간 部處別심사를 벌일 예정인데 이날 제1分科委는 국회사무처, 제2分科委는 法制處, 제3分科委는 國稅廳, 관세청, 제4分科委는 농수산부, 제5分科委는 체신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제1分委

[illegible]

제2分委

[illegible]

농산물 연쇄점 2百여곳 설치

제4分委

[illegible]

제5分委

[illegible]

美國 우대金利 15% 下落전망

【뉴욕12日聯合】미국의 주요은행들이 12일 프라임·레이트(대우량기업우대금리)를 현행 17%에서 금년 최저 수준인 16.5%로 인하한데 이어 맨퍼·하드리 미 상무장관은 이들이 프라임·레이트를 내년에 가서는 15%로 인하할것으로 전망했다.

社會漫評

파내도 또 나오고…
파내도 또 나오고…

地平線

[illegibl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문학강좌에의 초대

현대한국의 문학평론가이며 서울대학 교수인 박동규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교민을 위한 문학강좌를 가지오니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 없음)

때 : 1981년 11월19일(목) 하오7시
곳 : 토론토한인회관
(20 MOBILE DR. TOR.)
주제 : "한국문학의 특성"
— 1045—1970년의 변모사항 중심
연사 : 박 동 규 박사
(현 토론토대학 교환 교수)

주최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후원 : 한국일보 — 토론토사

김장세일

◆정씨농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아래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세일 합니다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기 간 : 11월16 일~11월29일까지

배 추 : $6.50—50파운드(1BOX)
무 : $6.50—50파운드(1BAG)
총각무 : $7.50—30파운드(1BOX)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㉑

3·15선거는 영원히 이땅에서 씻지못할 치욕의 역사였다. 이나라역사에서 부정선거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3·15선거는 稀有의 음모에의한 악랄한 정치테러였다.

3人組 9人組공개투표, 4割사전투표, 幽靈투표, 선거幹部隊라는 이름의 테러행위등…그당시 유권자가 아닌 어린 학생들까지 공포분위기에 떨어야했던 그 부정선거의 수단과 방법은 굳이 들이켜 얘기할필요조차 없다.

부정선거元凶들의 「必勝작전」은 곧바로 그네들의 自滅작전이자 이나라에 엄청난 罪惡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필승작전은 李承晩박사를 계속 떠받든다는 명목으로 李起鵬의 부통령당선을 至上의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민주주의에 逆行하는 갖가지 제도의 改惡을 해놓고는 야당에 시간을 주지않고 早期선거를 계획했고 民主黨 대통령후보인 趙炳玉의 病死로 대통령후보경쟁자가 없는데도 악랄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당시 副一후보가 된 李 대통령은 장기집권의 문제를 떠나 민주원칙에 의한 선거를 한다고해도 저절로 당선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李起鵬, 崔仁圭등등 自由黨간부들은 극악무도한 숫법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행했다. 이 부정선거를 두고 당시 항간엔 李박사의 권위와 聲價를 타락시켜놓고 某種의 계획을 추진하려는 음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推論까지 있었다.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馬山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은 민중의 당연한 권리요, 이 민족의 기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悲劇의 終焉

3·15부정선거 온갖政治테러亂舞
李大統領 "4·19는民族의얼"…下野

얼마뒤 4·18高大生데모에 이어 4·19가 터졌다. 4·19는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다. 나는 4·19가 역사를 刷新해야할 千載一遇의 기회라고 생각, 잘되기를 빌었다. 한편 내가 감히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4·19의 과정에서 外勢가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굳이 내가 얘기 안해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 것이라 믿는다.

나는역사적인4월19일 하루종일 학생들의 데모를 지켜보았다. 「西大門경무대」李起鵬집앞에서선 猛烈한학생들이 연좌데모를하는 것도보았다.

그날밤 8시30분께 景武臺에서전화가 걸려왔다. 朴贊一비서였다. 그는 「尹부의장님(그는 예날의 국회직책을 그대로 불렀다). 대통령각하께서 내일 아침 9시까지 들어오시라는 분부입니다」라고 말했다.

隔世之感이라더니 이런걸 두고말하는가 보다. 金鍾城 景武臺에들어간본게 그 언제였는지 기억도 흐렸다.

그렇지 않아도 李 대통령에게 나대로의 진언을 하러 밀고들어갈 참이었다. 나는 4·19의 밤을 뜬눈으로 꼬박 새웠다. 그러면서 李대통령에게 얘기할 敎國方策을 머리속가득히 정리했다.

다음날인 20일아침 8시30분께 景武臺에 가려고 집을나서기직전 朴비서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매카나기 美대사가 들어와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곧이듣고 기다렸으나 그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누군가가 「西大門경무대」쪽으로 연락해 그쪽에서 나의 景武臺방문을 막았다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그들은 내가 李박사에게 어떤 直言을 하리란것을 짐작한 것이다. 朴贊一비서가 두번째 전화를 내게 했을 때는 H씨, P씨등 다른 인사들이 경무대에 들어가 있었다.

며칠을 기다리다 내스스로 景武臺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가 할말은 없었다. 李 대통령은 「민주주의정신에 의해 이토록학생들이 나라를 걱정하니 나는 나라를 위해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4·19를 가리켜 「이는 이나라의 앞날에 광명을 던져준 민족의 얼」이라고 칭송했다.

李박사는 결국 4월26일 下野성명을 냈다. 그때까지도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돼 곳곳에서 流血사태가 일어났다. 어디론가 행방을 감췄던 李起鵬一家는 28일새벽 경무대에서 集團自殺을 했다. 이무슨 비참한 末路인가.

그날오후 李 대통령은 그의 私邸인 梨花莊으로 갔다. 그때 李박사는 걸어서 梨花莊에 가겠다고 했으나 주위에서 말렸다. 民主黨인사들까지와 「신변이 위험하다」며 차를 타고 갈것을 권했다.

한없이 悔恨가 서린 老顔의 李박사가 梨花莊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기가 막혔다. 일찌기 독립의 영웅이자 建國의 大功臣인 老대통령을 人의 張幕에 가둬놓고 총명과 英智를 가리게한 不正의 무리들이 한없이 저주스러웠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그분을 도와 선생님으로 모시고 일했던 나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처음 느껴본 한맺힌 아픔이었다. 그건 나자신도 증오스러웠다.

이렇게 되기까지 나 무엇을 했는가. 왜 좀더 부정을 못했던가…하는 自責感이 한없이 날 괴롭혔다.

한편으론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됐다. 이역사적인 契機를 그야말로 국가번영과 민주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할 것이라는게 당시의 나뿐만 아니라 온국민의 염원이었던 것이다.

◇建國의支柱였던 李承晩대통령은李起鵬一派의 3·15라는 씻을수없는罪科로 不名譽退陣 해야만했다. 사진은 60년 4월26일 下野한 李대통령이景武臺를떠나 私邸인 梨花莊으로가는모습.

◇갈수록 熱氣… 치닫는 健脚들 폐막을 하루앞둔 京釜大驛傳 5일째 레이스에서 6개시도 선수들이 출발점 大田을뒤로하고 天安을향해달리고있다. 【京釜大驛傳취재반】

京畿 5구간서 先頭… 慶北 위협

서울도 底力발휘 1초차 2위
優勝판도는 最終코스서 가름

27회 釜山·서울大驛伝경주

北上할수록 慶北처져
朴京德·兪正濬 페이스 회복

【京釜驛傳취재반】京畿팀이 大田―天安간 제5구간에서 선두로 골인, 慶北·서울·京畿 3팀이 최종제6구간에서 우승을 놓고 맹렬한 선두다툼을 벌이게되었다.

13일 진행된 제27회 京釜대역전경주대회 5일째 大田―天安(81·8㎞) 제5구간에서 京畿는 兪貞濬·朴京德의 수훈으로 慶北을 따돌리고 4시간12분19초의 기록으로 天安에 1위로 골인, 慶北의 독주에 또다시 브레이크를 걸었다. 慶北은 제4소구 燕岐―鳥致院간에서 崔東鎬가 분전, 한때 선두에 나섰으나 京畿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으며 서울에게도 추월당해 4시간16분39초의 기록으로 3위를 마크했으며, 서울은 4시간16분30초로 2위로 골인했다.

한편 釜山―天安間(398·8㎞) 종합 기록에서는 慶北이 20시간17분42초로 선두자리를 고수했으며 京畿는 20시간25분37초로 전날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서울은 20시간 25분38초로 京畿에 1초뒤져 3위가 됐다.

1위 慶北과 3위 서울과의 기록차는 7분56초에 지나지않아 최종구간서 우승을 놓고 일대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신인들이 주력을 이룬 全南은 비록 선두그룹에 나서지 못했지만 연도의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격려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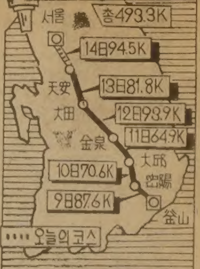
이날 레이스는 大田―儒城間제1소구에서 승부가 판가름나는듯했다.

兪正濬을내세운 京畿는 제1소구를 선두로통과하고 서울이 3위, 慶北이 5위로지나 예상을완전히 뒤엎었다.

慶北의 강호 金鍾允은 1소구에서 부진했으나 이번대회 4개구간에서 내리 1위를차지한 에이스 朴元根이 慶北을 제2소구에서 2위로끌어올렸다. 京畿의 朴京德은 朴元根과의 두차례대결서 패했으나 京畿는 선두의 자리를 뺏기지 않았다.

그러나 京畿팀은 3·4소구에서 慶北의 李善熙·崔東浩등의 도전을받아 한때 위기에몰렸으나 林相圭·金俊鏞의 분투로 慶北을제치는데성공했다.

서울은 제6소구 全義―小井里까지 3위를달렸으나 慶北 崔慶烈의 부진을틈타 최종7소구에서 추월, 2위에 나섰다.



◆제 5일기록 (釜山―天安398·8㎞)

①경 북 20시간17분42초
②경 기 20시간25분37초
③서 울 20시간25분38초
④부 산 20시간52분45초
⑤경 남 20시간59분41초
⑥전 남 21시간23분24초

◆제 5 구간 기록 (大田―天安81·8㎞)

①경 기 4시간12분19초
②서 울 4시간16분30초
③경 북 4시간16분39초
④경 남 4시간18분25초
⑤부 산 4시간22분 4초
⑥전 남 4시간30분18초
※조정구간

◆소구별 기록

◇제 1소구 (大田―儒城10·9㎞)
①俞貞濬 (경기) 32분45초
②鄭渭植 (경남) 32분57초
③金榮坤 (서울) 33분 3초
④李相根 (부산) 33분 8초
⑤金鍾允 (경북) 33분40초
⑥黃萬淵 (전남) 34분13초
※종전최고朴京德 (경기) 32분12초

◇제 2소구 (儒城―大平里16·2㎞)
①朴元根 (경북) 47분55초
②朴京德 (경기) 47분57초
③黃奎勳 (서울) 49분21초
④金鶴洙 (전남) 50분35초
⑤金槙教 (부산) 51분19초
⑥沈國鏞 (전남) 52분54초
※종전최고朴京德 (경기) 47분27초

◇제 3소구 (大平里―燕岐11·1㎞)
①李善熙 (경북) 33분59초
②宋俊圭 (경기) 34분6초
③林鍾九 (부산) 34분29초
④吳世科 (경남) 35분4초
⑤柳大洙 (서울) 35분34초
⑥明東烈 (전남) 36분50초
※종전최고徐炳大 (충남) 33분12초

◇제 4소구 (燕岐―鳥致院 7·4㎞)
①崔東鎬 (경북) 21분58초
②柳光烈 (경기) 22분45초
③嚴淳鉉 (서울) 22분55초
④金元植 (전남) 23분12초
⑤盧浩龍 (부산) 23분22초
⑥徐文石 (경남) 23분53초
※종전구간

◇제 5소구 (鳥致院―全義15·5㎞)
①柳在聖 (경남) 47분39초
②吳在道 (서울) 48분23초
③林相奎 (경기) 49분 3초
④蔡鴻洛 (경북) 50분23초
⑤朴英培 (부산) 51분59초
⑥李炳旭 (전남) 52분21초
※조정구간

◇제 6소구 (全義―小井里 8·4㎞)
①鄭鍾樸 (경북) 26분27초
②金光澤 (부산) 26분36초
③元鍾赫 (경기) 26분38초
④全泳碩 (전남) 27분 5초
⑤康泰國 (서울) 27분37초
⑥朴致鉉 (경남) 27분43초
※종전최고俞貞濬 (경기) 24분30초

◇제 7소구 (小井里―天安12·3㎞)
①金俊鏞 (경기) 39분 7초
②李星稷 (서울) 39분37초
③鄭必和 (경남) 40분34초
④孫晋文 (부산) 41분11초
⑤崔慶烈 (경북) 42분17초
⑥李後奉 (전남) 43분43초
※종전최고李善熙 (충남) 37분 6초

◇각팀간 기록차

①―② 7분55초
②―③ 0분 1초
③―④ 27분 7초
④―⑤ 6분56초
⑤―⑥ 23분43초

男女마라톤 채택 83년 세계陸上

【東京12日AP=聯合】오는83년 7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남녀마라톤이 경기종목에 포함될것이라고 12일 프리모·네오빌로국제아마추어육상경기연맹(IAAF)회장이 밝혔다.

오는15일로 예정된 81년도 도오꾜(東京)국제여자오픈마라톤선수권대회에 참관하기위해 日本을 방문중인 네오빌로회장은 83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여자마라톤경기가 대회첫날에 그리고 남자마라톤경기는 마지막날 실시될것이라고 말했다.

亞洲남자농구

【캘커타12日AP=聯合】한국은 12일 캘커타에서 개막된 제11회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C조 1차전에서 약체 싱가포르를 109―62로 대파, 첫서전을 장식했다.

이날 대전에서 李忠熙는 26점, 金東光은 15점, 李敏鉉은 14점을 각각 올렸다.

한편 中共은 이란을 1백16―70으로, 日本은 홍콩을 1백4―44로 물리쳤다.

◇제1일전적

▲A조
말레이지아 96―62 파키스탄

▲B조
중공 116―70 이란
일본 104―44 홍콩

▲C조
인도 102―37 스리랑카
한국 109―62 싱가포르
필리핀 81―64 타이

南北韓, 오늘 4強놓고 對決

킹스컵축구忠義팀 成樂雲감독과 국제電話

제14회 킹스컵축구대회(방콕)에 출전한 忠義팀은 14일 밤 북한대표팀과 B조 3차전을 벌인다.

현재 1승1패를 기록하고있는 忠義는 북한을 물리쳐야만 4강이 겨루는결승토너먼트에 진출할수 있다.

북한도 13일 현재 2무승부를 기록, 忠義와 함께 승점2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쿠웨이트 아시아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한국에 2—1로 역전패 당한후 일부선수를 교체하고 이대회에 출전했다.

14일의 남북대결을 앞두고 본사는 忠義의 成樂雲감독과 국제전화를 연결, 忠義선수들의 컨디션과 북한팀의 컨디션등을 알아보았다.

"北韓은 개편한 代表팀 趙廣來 다쳤으나 꼭 이기겠다"

—폴란드와의 대전에서 패한이유는.

▲폴란드팀은한국의忠武급에속하는 2진대표팀 이었다. 기술이나 경기운영이 한단계 위였다. 주장인 HB 趙廣來와 FW 秋鍾洙가 부상으로빠져 구멍이 생겼다.

—4강에오를수있는가.

▲북한을 물리쳐야한다. 최선을다해 승리하겠다.

—북한팀의 컨디션은.

▲그들은 주濱선발팀 이라고말하지만 사실상 대표팀이다. 작년과 금년1월 홍콩에서 열렸던 월드컵예선때 나온 선수그대로다. 쿠웨이트 아시아선수권 대회서 한국에패한후 주전6명을 제외하고 천원신진으로 교체했다고한다.

—북한팀의 수준은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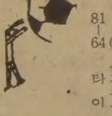
▲濠洲와의경기에서는약간우세했고 印度와는 막상막하였다. 4·3·3시스팀을 사용하는데, 공격 전방에 1m90이넘는 두 장신을 기용하고 오른쪽윙이빠른것같다. 스위퍼가 눈에 띄었다.

—忠義 선수들의 결의는 어떤가.

▲趙廣來는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과의경기에 나가겠다고 말하고있다. GK 曺圭泰를 빼고 李圭範을 기용할생각인데 14일 아침 컨디션을 보아야겠다. 선수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다.

忠義, 波에 패배 1―3

킹스컵蹴球대회



【방콕12日AP=聯合】한국의 忠義팀은 12일밤 이곳 국립경기장서 벌어진 제14회 킹스컵축구대회 예선B조 두번째 경기에서 장신의 폴란드팀에 3―1로패해 1승1패가 됐다.

攻守의 중추신경인 趙廣來가 부상으로 결장, 팀웍에차질을 빚은 忠義는 전반종료 1분전에 FB李章洙가 백패스한볼이 바운드되면서 GK 曺圭泰의 키를넘어 자살골, 1―0으로 리드당했으나 후반20분 FW 姜京昊가 멋진 문전헤딩슛을 성공시켜 1―1타이스코어를 만들었다.

忠義는 동점골을 터뜨린후 활기를 보이는듯 했으나 23분에 수비의 허를 찔려 페널티에리어 정면에서 카빈스키에게 예리한 중거리 슛을 맞아 2―1로 뒤졌으며 31분 문전혼전중 히라디스키에게 또 실점, 3―1로 패하고말았다. 폴란드 공격진은 개인기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忠義페널티에리어 근처에 접근하면 위력적인 중장거리슛을 때렸다.

◇제4일전적

▲예선B조

폴란드 3 (1―0, 2―1) 1 한국
(2승) (1승1패)

流星의 賦 <23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㉜

『홍공, 육기(陸機)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소』

주기가 돌며 따라 감상이 격앙하는 모양으로 하석이 하고 물었다.

『이름을 들은 바는 있으나 아는 바는 없소』

계남의 대답이었다. 계남은 육기가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오(吳)나라의 장군 육손(陸遜)의 손자이며 육항(陸抗)의 아들이며, 두보(杜甫)를 감탄케한 대문장가(大文章家)라는 사실을 듣고 있었으나 그의 글을 읽은 바는 없었다.

『내 육기(陸機)의 시를 읊어보겠소』

하석의 말이라서 계남은

『공의 시창을 듣고 싶었소』

하고 반겼다.

『내 시창보다 육기의 맹호행(猛虎行)을 들어보시오. 혈용육약(血勇肉弱)한는 심정이 되리다』

하석은 이렇게 서두하고 읊기 시작했다.

『渴不飮盜泉水(갈불음 도천수)熱不息惡木陰(열부식 악목음)惡木豈無枝(악목 기무지)志士多苦心(지사 다고심)…飢食猛虎窟(기식 맹호굴)寒棲野雀林(한서 야작림)日歸功未建(일귀 공미전)時往歲載陰(시왕 세재음)急絃無懦響(급현 무유향)亮節難爲音(양절 난위음)人生誠未易(인생 성미이)曷云開此衿(갈운 개차금)眷我耿介懷(권아 경개회)俯仰愧古今(부앙 괴고금)』

계남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오나라가 망한 뒤 망국지신(亡國之臣)으로 유탕하다가 진왕조(晋王朝)에 출사하게 되었으나 끝내 간인(奸人)의 참소를 받아 비명에 죽은 육기의 울굴한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간만에 마음을 씻은것 같소이다』

하고 계남이 하석의 잔에 술을 채웠다. 하석이 그 잔을 두 손으로 받곤

『팽팽한 거문고가 둔한 소리 내지 못하지만(急絃無懦響), 높은 절개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다(亮節難爲音)에 육기의 슬픔을 느낄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도 갈(渴)할망정 도천(盜泉)의 물은 마시지 말고, 더울망정 악목의 그늘에선 쉬지 맙시다』

하고 술잔을 비웠다.

그리고 음성을 낮추어 이런말을 했다.

『정여립이 율곡선생에게 한 짓을 보면 분명히 나쁜 놈인데 어찌하여 그런자가 그토록 인망을 얻었을까. 그까닭이 궁금하지 않소?』

『나도 가끔 그런걸 생각하오』

계남의 솔직한 대답이었다.

『벼슬로 치면 홍문관 수찬 밖에 못하고 임금의 비위를 거슬러 낙향한 그 자가 어떻게 조정의 중신들의 신망을 얻고, 또는 지방 수령들로 부터 백석(百石) 2백석의 기진(寄進)까지 받아선 수천명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킬만한 세망(勢望)을 모았다는 사실은 진실로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정여립의 옥사는 끝나도 그가 음모한 반란의 의미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나는 믿는바이오』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나라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걸 나는 알뿐이오』

계남은 조용하게 말했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토론토한인합창단 제6회 연주회

헨델 작곡 오라토리오
메 시 야 대 연 주 회

지 휘 : 박 재 훈
독창 : 이 정 애(쏘프라노)
배 정 숙(알 토)
옥 인 걸(테 너)
신 경 욱(바 리 톤)
합창 : **토론토한인합창단**
찬조 :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성가대
박주 : 노스-욕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프시코드및 오르간 유회자)

후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협의회
일시 : 1981년12월4일(금) 저녁8시
곳 : 메시·홀(178 VICTORIA, TOR.)
티켈 : $12.00(A), $9.00(B), $6.00(C)
예매처 : 토론토종교서관(535－1920)
전화주문 : 222－4662(MRS. KIM)

주 최 : 토론토 한인 합창단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가게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 구함
☎ : (B)532-6143
(R)532-9638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GAS ATTENDANT구함
☎ 782 6311

매주 일요일만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 : 531-0277 (Mrs. 황)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77-1110

스토아 헬퍼구함 (일요일)
(시간 : 12시~8시)
☎ : 921-0624(다운타운)

"동업자 구함"
중국음식점. 현재 한국인이 경영하고있음
희망자는 시설비 약2만불 정도. 경험유무는 관계없음
☎ : 656-0483 (오후4시이후 연락바람)

도나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오후 4시~밤1시
☎ : 499-4459

매매및 양도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급 매
카메라 스토아(전자제품 일부포함)팝니다.
$25,000+스탁
619 BLOOR ST. W.
☎ : 534-1085

개인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가정형편상 급히 처분하고자 함)
☎ : 526-7179 해밀톤
(오전10시~오후5시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성업중인 레스트랑 매매 :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
7721 YONGE ST & CENTRE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집·방세·하숙

집세놓음 DAVENPORT — OLD WESTON RD
3베드룸 . 2화장실
☎ : 536-8506

6RM HOUSE FOR RENT(도바코트와 칼레도니아근처. 버스정유장 근처. 렌트 : $600+유지비
☎ : 533-4481(마이클)

양 장 점

셸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f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캄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가게 헬퍼가 필요하세요 ? ?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533-236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한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미·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50% OFF)
☎ : 465-8167 (MR. 김. MR. 곽)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기 타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씨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R) 281-1954Mrs남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
VISA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 : 533-2361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일보는 매일 1000여개의 안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모눈종이 위의 生 ⑳

金光善 作 · 趙善培 畵 253

화제가 달라진 것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어서 나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녀들의 이야기 속에 섞여 있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얼핏 팔목시계를 보았다. 그런 내 조바심을 눈치챈 한민일씨의 부인이 눈짓을 주었다.
『왜 바쁘세요?』
『네 조금. 너무 오래 있어 폐도 되는 것 같구요』
내가 말했고, 아래층 부인도 『아참, 내 정신 봐.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했는데…』 하고 일어섰다.
한민일씨의 부인은 일행을 현관 바깥까지 배웅했다. 밖으로 나와 단지 앞의 도로에서 나는 군자와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 군자가 『너 어디 아프니?』 하고 물었는데 아마 내 안색이 표가 나게 좋지 않아 보였던 모양이었다.
『아니』 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누구에게인가 눈치채일만큼 얼굴색이 나빴다는 사실은 나를 분개하게 했다. 군자와 그녀의 이웃부인과 헤어져서야 비로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단지 앞의 도로를 빠져 나오며 나는 눈물 때문에 자꾸만 발을 헛디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지구의 표면이 내가 굳게 디디고 설 수 없는 확인 것처럼 느껴져 서 그만지 너무도 서러웠다.
이튿날 나는 늘 내 스스로를 빛이는 일에 착수했다. 치사할의 외양들을 손에 보는 일은 내게 너무도 쉬웠다. 연전에 이모님 댁에 들러 이모부님과 이모님을 마지막 뵈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사이에 아제실로 들어가 다락의 아티방에 때에 넣은 것이다. 그길로 나는 세호가 묵고있는 호텔로가서 세호와 은애를 만나 보았다. 그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따위의 서투른 짓을 나는 결코 하지 않았다. 새로산 엘로의 아파트이야기를 하고 난 세호가 『제기동집은 얼마동안 세를 주지 그래요. 아주 팔아버려도 좋고. 아뭏든 난 그런 누님으로 생각하고있으니까 팔아서 결혼 밑천을 하시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고 말했을때 나는 『그래 팔자. 나도 이제 〈바꾸기 놀이〉에서는 그만 살련다』 하고 대꾸했을 뿐이었다.
민희는 고추장을 가지러오겠다며 집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만나 보았다. 세호의 호텔에서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온 나는 회사에서 퇴근길에 들른 민희와 대문간에서 만났다. 장독에서 고추장을 담고 있는 민희에게
『정화 하게 절반만 가져 간』
하고 전화하게 말했는데, 민희는
『언니는 혼자고 우린 둘이잖아』
하고 불평했다.
『내달에는 오빠도 살림을 시작한다지 않니?』
하고 나는 그만 울까 하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민희 역시 내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 따위는 눈치채지 못했고, 음무를 마치자 부지런히 돌아갔다.
민희가 돌아간 뒤 나는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했다. 얼마면 수천이라는가 나서한 몸이 따위, 그것으로 하여금 내 생전(生前)의 일을 어렴풋이나마 흩어낼 수 있는 단서가 될것 들을 아궁이로 가져가 모조리 불태워 버린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집을 나왔다. 내가 죽음의 장소로 선택한 곳은 북아 P호텔이었다. 대문의 바깥 문고리에 나는 거의 사용한 일이 없는 녹슨 커다란 자물쇠를 채웠다. 자물쇠를 채운 다음 나는 다시는 돌아올 리없는 〈바꾸기 놀이〉를 향해 오랫동안 서 있었다. 뭉툭한 쇠를 한 덩이가 목구멍에 충격을 주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집을 등지고 나는 내 목숨을 향해 또렷한 걸음으로 골목길을 빠져 나왔다.